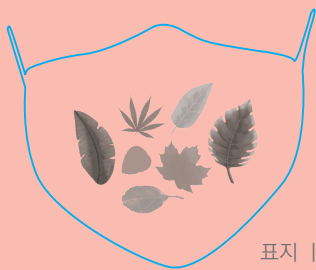


정릉야생

정릉 마을잡지 2020.no.05





표지 |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마스크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

정릉아침

정릉 마을잡지
2020.no.05





Photo | Swan

시시콜콜

별일없이

산다

09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김가희
14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의 새로운 대안, 그 이후의 이야기	문지원
20	‘천변풍경’ 답사기	이아현

스샷스샷

마음을

스치다

28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며	이연수
32	아버지의 바다	함동갑
35	중국인 며느리의 김치 사랑	곡효여
38	비슷한 것이 때로는 다른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든다	클라라
41	집으로 가는 길	김준엽
45	미완의 완벽을 꿈꾸며	권남옥
48	소설 『페스트』를 통해서 코로나를 생각하다	오숙현
51	명이 사라질거야	오영주
54	코로나19와 나	김은순
57	내 옆에 로나 씨	정다운
58	o와 o	차정미



호리조리

가이

타고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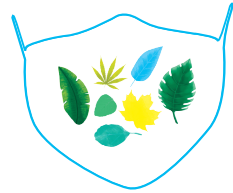
69	정릉과 김교신 선생	김가희
76	독립영화,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조이에환
81	운동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임민창
84	결국은 ‘우리’의 문제 기본소득	그록
89	위로받고 싶은 날엔, ‘앤’ (Anne)	김해경

2020 야책문학

94	시상愛 #1 외 1편	유현재 최수연
97	돌의 마음	조성권
98	별 별 외 1편	이혜성
100	이별	이밥
108	Plastic Poison 외 1편	Annette Kim



2020은 코로나19로 기억될 것입니다



몇 달 전만해도 코로나19가 이렇
게까지 잡히지 않을지 예상 못했지만 이
제는 당분간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
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지 못하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
대면 소통방식에 대한 실험이 늘어났습니
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
통하고자 하는 갈망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
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자연스러워진 기
본소득에 대한 논의만 보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권이 있으며 함
께 사는 삶이 파괴되면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

여 각자 도생의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저
물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부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
아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야책인들의
삶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
릉야책 5호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주목
할 만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미아리고
개 마을장터 고개장의 홈쇼핑과 무인마
켓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반응을 이끌
어내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언택
트 문화의 사례지만 마을장터를 통해 사
람을 모으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의미를
두었던 활동가들은 여전히 만남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고 환경과 공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가져오게 했죠. 청소년 세대야말로 자신들의 미래와 연관해서 기후위기 등의 환경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입니다.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해 온 청소년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알아봅니다. 아울러 정릉의 다른 마을잡지 <능말이야기>의 편집장이신 김란기 선생님이 운영하는 갤러리카페이자 문화공간인 <천변풍경>을 둘러싼 재미난 이야기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많은 주민들이 에세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두 편의 에세이와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중국인 며느리의 김치 사랑 이야기가 눈에 띄니다. 에세이 역시 코로나19를 비껴가지 않았는데요. 개인들의 삶에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은 코로나19 시대의 기록으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호에도 성북문학 이야기와 운동 오지라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무교회주의와 마라토너 손기정 선생의 은사로 알려진 김교신 선생의 일기를 바탕으로 선생의 정릉살이를 재구성해 본 글과

건강을 위해 이번에는 수영을 하게 된 필자의 운동 경험담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영화가 원지 정의내리기 알쏭달쏭하다면 영화 <불빛 아래서>의 감독 조이예환님의 글을 추천하며 스테디셀러 <빨강 머리 앤>을 정신 질환적인 측면으로 색다르게 읽어낸 글도 재밌습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재난소득 지출에 대한 경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나아가 나에서 우리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존재가 도래해야함을 철학적으로 성찰한 글도 의미가 큼니다.

문학 파트에는 청소년들이 보내온 시가 더해져 신선함을 더해주었고 단편소설 연재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림과 사진으로 잡지의 볼거리를 보태주신 분들도 계셔 잡지 구성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편집위원들을 넘어 정릉야책 5호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만들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번 호 역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겨울 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시시콜콜

별일 없이

산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환경봉사동아리 <이지>, 이정운 학생을 만나다

글 김가희

인류를 위협하는 시나리오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자연은 이미 인류에게 경고를 보낸 것일지 모른다. 인간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수십억 년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를 인류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자연이 인류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준 것일 텐데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 경고인지 모를 현 사태에 인류는 자연이 준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중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태야말로 전례 없이 충격적인 사건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지금의 사태와 무관하게 피해를 본 세대다.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 칭한다. 국제기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앞으로 십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의 1.5도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어갈 것이라 예측하였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청소년들의 미래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청소년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 변화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응답해야할 차례다.

청소년들의 행동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우리 동네에 환경을 걱정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대학교부속중학교(이하 고대부중) 동아리 <이지>의 부장인 이정윤 학생을 만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부중 3학년 학생이고요, 학교 환경봉사동아리 <이지(Easy)>의 부장이예요. <이지>의 뜻은 자연이랑 사람에게 이바지한다는 뜻과 쉽다는 뜻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 동아리 멤버는 14명이예요. 동아리는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6~7년 전에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지> 동아리를 왜 선택했나요?

입학한 후에 선배들이 동아리 홍보하러 와서 우리 반에 포스터를 붙이고 갔어요. 사람들이 봉사를 좋아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포스터를 봤을 때 봉사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아서 하게 되었고 봉사를 주제로 만들어진 동아리는 흔하지 않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환경동아리인지 몰랐는데, 환경봉사동아리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지> 동아리 활동을 소개해주시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가 있고요. 봉사 일정이 잡히거나 행사가 있으면 주말이나 학교 끝나고 모임을 가져요. 정기회의에서는 개울장이나 지역행사가 있을 때 참여할지, 참여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등의 주제로 회의를 해요.

올해는 개울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개울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개울장에서는 주로 부채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놀이터 앞에서 어린이들이 종이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갖고 놀게 하면서 부채를 왜 만드는지, 에너지 절약은 어떻게 하는지, 환경을 왜 보호하는지, 환경보호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작년에는 환경이야기를 하면서 에이드를 팔았어요. 에이드를 팔아서 동아리 캠프 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순수익이 2천원 나왔어요. 다행히 어떤 분이 후원을 해 주셔서 캠프는 갈 수 있었어요. (웃음)

<이지>동아리는 동아리가 만들어진 해부터 개울장에서 자신보다 어린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캠페인을 해왔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이 직접 설명해주는 환경교육이라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효과가 클 것 같다. 올해는 <이지> 동아리의 주 활동 무대인 개울장도 안 열리고 캠프도 가기 어려워 아쉽고 슬프기까지 하다는 정운 학생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더 이어갔다.

환경동아리 <이지>에서 활동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9세기 말부터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고 그 원인이 인간이 사용한 화석연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꿈꾸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환경 오염도 심하고, 태평양 바다에 쓰레기 섬이 대한민국 몇 배나 되는 규모로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더 관심이 생겼어요.

개울장 이외에 다른 활동도 소개해주겠어요?

정릉은 마을 축제가 많아서 좋아요, 더하기 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에는 환경 관련 게임을 만들어서 참여했어요.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한 문제를 풀면 스탬프를 찍어주고 사탕을 선물로 줬어요. 개인적으로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1학년 때는 북한산에 가서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는데 2학년부턴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올해는 ‘자연순환연대’에서 개최하는 도전 캠페인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 ‘one tree planted’라는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아 필요한 곳에 나무심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나무심기나 쓰레기 줍기 활동 같은 캠페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어요.

가장 재밌었던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작년 11월에 삼덕마을을 빌려서 하루 동안 어린이들이랑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팀을 나눠서 분리배출 보드게임도 하고 환경 관련 팝업 북도 읽어 주고 환경을 주제로 젠가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했네요. 준비하는 공모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정윤 학생의 꿈에 대해 들어볼까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꿈들도 생겨나요. 그 꿈 중 하나가 지구 환경을 살리는 거라 환경운동가가 될까 생각해봤는데 사람들이 환경운동가의 말을 안 듣더라고요.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열심히 해봐도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아요.

환경이 파괴된데는 어른들의 책임이 큰데
그런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려놓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무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친구들도 평소에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에 대해 알고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고대부중에는 많은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지> 동아리는 학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 그래서 학교 밖 마을과 연결하는 일에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님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정윤 학생의 활동을 좋아하시고 지지해주신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지구한테는 마지막 발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태가 끝나도 지금을 기억하면서 지구를 잘 대해주면 좋겠다고 정윤 학생은 말한다. 학교에 안 가니 공부를 일찍 끝내고 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친구들을 못 만나고 동아리 활동을 못 하는 게 아쉽다고 한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잦아들어 정윤 학생의 <이지>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의 절박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가 지구에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의 새로운 대안, 그 이후의 이야기

글 문지원

길음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으로 넘어가는 차도아래, 흥미로운 공간이 하나 있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미인도’. 미인도에서는 달마다 물건을 사고팔며 이웃들과 교감하는 ‘고개장’이 올해로 5년째 열리는 중이다.

COVID-19 이후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진 시기, 위기 속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고개장의 신선한 아이디어들! GM홈쇼핑과 무인마켓이라는 5월의 새로운 시도를 뒤로하고 6월의 고개장까지 막마친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의 담당자 두 분을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닝 안녕하세요. '미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이민영입니다. '고개엔마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고개장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셀러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홀연 안녕하세요. '고개엔마을'에서 기획자 '홀연'으로 활동 중인 이채원입니다. 음악 전공이라 고개장에서 '건반 위의 호리병'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어요. 피아노도 치고, 직접 쓴 곡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개장 외의 프로그램들도 기획하죠.

고개장 얘기를 하기에 앞서,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역사가 깊더군요.

홀연 미아리고개 고가 밑에 '미인도'가 있어요. 원래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던 장소였어요. 펙치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우범지역이었죠. 2014년 지역예술가와 활동가들의 커뮤니티 '공유성북원탁회의'에서 여기를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미인도가 만들어 지고, 미인도를 함께 운영해나가는 친구들이 모여 아미고(아름다운 미아리고개 친구들)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동아리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북문화재단에 후원 제안서를 써서 보냈어요.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일방향적인 후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반응이 왔죠. 그 즈음이 아미고가 만들어지는 시기여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미닝 굴다리 밑의 하부 공간, 미인도를 활용해보자는 의도와 함께 아미고가 시작됐죠. 이후에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이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성북문화재단에서 처음 고개장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이후에는 협동조합 '고개엔마을'로 합류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오래 가서 당황하셨겠어요. 고개장은 보통 5월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COVID-19가 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어떠셨어요?

홀연 저희가 고개장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프로그램 걱정이 더 많았어요. 고개장에 대한 걱정은 3월말부터 시작됐죠. 여러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속속들이 취소됐죠. 고개장마저 취소하면 너무 무력해지는 것 아닌가, 미루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간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공공시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정책 등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미냉 고개장을 여는 장소인 미인도는 공동운영 공간이에요. 공유지인 셈이죠. 성북문화재단과 '고개엔마을'이 MOU계약을 맺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태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번 고개장 운영 아이디어가 놀라웠어요.

홈쇼핑, 무인마켓 아이디어의 준비과정은 어땠나요?

홀연 처음엔 혼선이 많았어요. 주문을 받는 과정, 물품배달, 정산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었죠. 쇼호스트에게 전달할 물품정보 수집도 어려웠어요. 상품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가 충분치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죠. 셀러 반상회를 열어 설명하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같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죠. 누군가 주문하면 결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또 쇼호스트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미냉 5월에는 시행착오가 꽤 많았어요. 셀러들과 사전에 미팅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어떡할까요?' 만 서로 묻곤 했죠. 행사 진행 때는 인력이 더 필요했어요. 사실 무인마켓도 셀러만 없는 거지 스태프가 그 자리를 채

워야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지금처럼 크게 분주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행사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바빴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현재 운영 방향을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홀연 사실 홈쇼핑이 이 고개장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 시장은 사람을 직접 만나야 의미가 있는 건데. 물건을 사고 팔기만 한다면 마트와 다를 바 없죠. 홈쇼핑과 고개장이 일대일로 치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시민 시장에 대한 가치가 투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홈쇼핑이 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5월 수익결과가 좋으니 오히려 수익만을 바라고 오는 셀러들도 생겨나는 것 같다, 그들에게 고개장이 오인될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닝 처음에는 미인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고개장을 운영해왔는데, 5년차에 접어드는 지금은 ‘고개장을 왜 하고 있을까? 고개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요. 고개장을 하면서 돈만 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개장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 개인들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군요. 중요한 지점이네요.
시민 시장, 고개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홀연 제게는 고개장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셈이에요. 어떤 실험과 시도를 해도 괜찮은 나만을 위한 무대죠.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네트워킹을 위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고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가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미냉 셀러들이 고개장을 물건을 사고파는 플랫폼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수단화한다고 생각하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고개장에 무엇을 기대하지? 나는 왜 고개장이 단순한 서비스화, 수단화 되는 게 싫지?’에 대한 물음과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뭘 하고 싶은 거지?’의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고개장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장이에요. 다 같이 준비하거든요. 각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에게 소홀해지더라도 고개장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성향이나 장점을 다시금 파악하죠. 또 즐거운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고개장을 하는 거야, 라는 걸 계속 깨달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순 직장동료 이상의 동지애와 유대감을 느끼죠.

다소 상투적이지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COVID-19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홀연 어떤 사람들은 ‘언택트로 계속 갈 것 같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언택트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싶어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야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미닝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 사람을 모으고 만나는 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잖아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시도해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게 했다. 마을에서는 축제나 장터가 가장 먼저 사라졌다. 물건을 파는 것의 의미를 넘어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의미를 둔 고개장이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현재 고개장의 고민은 고개장이 추구하는 시민 시장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고개장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시장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그들은 이번에도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기대하며 다음의 고개장도 무사히 열리기를 희망한다.♣



‘천변풍경’ 답사기

글 이아현

정릉시장,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시원하게 흐르는 정릉천을 몇 번 와본 적이 있다. 수업을 들으러, 또 수업을 진행하러, 시장 탐사도 하고 개울장에 참여도 해보고, 하지만 시끌벅적한 중심부를 지나 이리 조용한 상류까지 올라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발걸음을 윗동네로 옮겨 갈수록 물줄기는 조금씩 얇아졌지만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풍경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수백 년 전부터 이 동네를 지켰을 법한 커다란 나무 밑 평상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시는 할머니들을 스쳐 지날 즈음, 왼편으로 생소한 건물이 하나 눈에 띄었다. ‘뭐하는 곳이지? 집인가? 카페인가? 무슨 학교 같은 곳인가?’ 작은 골목과 정릉천을 향해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건물 둘레엔 꽃 화분이 가득이다. 한쪽 벽면엔 커피 원두 가마니가 큼지막하게 달려있고 ‘인문학 강좌’와 ‘전시’ 안내문이 화분들 사이에 어우러져 걸려 있다. 작은 돌계단 입구 쪽을 살펴보니 멋진 붓 솜씨로 적힌 <천변풍경>이란 글씨가 오래된 이젤 위에 올려져있다. 이 길을 처음 지나는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묘한 매력을 가진 건물이다. 결국 그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비밀의 정원에 들어서고야 말았다.

어디하나 짝이 맞는 가구가 없다. 각기 다른 색과 다른 모양을 한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것들이 한데 모여 아주 독특한 분위기와 편안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어느 것 하나 벗어나지 않는다. 공간에 들어서니 갓 볶은 커피 원두의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감싸고, 정성스레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계시는 멋쟁이 신사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웬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계실 듯한 인상이다. 잠깐 시간을 청하여 이런저런 질문으로 공간 답사를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정릉천을 걷다 아주 묘한 매력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안으로 들어오니 더욱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이곳은 무얼 하는 곳인가요?

하하. 어서 오세요. 알쏭달쏭하죠? 여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이에요. 우선 ‘갤러리’이고요, ‘공간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음

료는 공간을 빌려드리는 의미에서 판매하고 있고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와~ ‘복합 문화 공간’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하겠어요.

맞아요. 아직 이 공간이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동네 주민 분들이 찾아 주시면서 소소하게 사랑방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이곳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주 오랜 시간이 쌓인 느낌이었어요.

그런가요? 이 집과 동네에 이사 온 것은 5년이 되었지만, ‘천변풍경’이란 이름의 이 갤러리공간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된 건 겨우 올해 1월 부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공간을 만들 계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곳은 제가 사는 집이었죠.

네? 이곳이 그냥 집이었다고요?

네. 지금도 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갤러리 공간 위의 2층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원래는 이 1층도 담장이 있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처음엔 다른 분께 세를 주고자 했었죠.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물 흐르듯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되어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네요. 하하.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겠는데요?

궁금해지네요. 보통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오픈하게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곳이었다니. 어떤 계기로 이 동네에 오시게 되었고 또 지금 이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원래 저는 후암동에 살았었어요. 그러던 중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 고민이었는데 마침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정릉을 소개시켜 주었죠. 크고 저렴한 괜찮은 집이 나왔다고 알려준 거예요. 제가 워낙 책과 자료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한지가 꽤 중요하죠. 처음 본 집은 이 집은 아니었어요. 지금 보다 언덕 위에 자리한 집이었죠. 그 집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사집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렇게 만나게 된 두 번째 집이 바로 이 집이죠. 여긴 원래 '점집'이었어요. 그걸 일이 아닌데 보통은 '점집'이라하면 조금 꺼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방 하나는 신방으로 꾸며져 있었고 화려했죠. 그보다 매력적이었던 것은 이 집이 '스스로 성장한 집'이라는 점이었어요. 건축가가 처음부터 완성작을 구상하고 설계하여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히, 살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무언가를 조금씩 계속 만들어 덧붙인' 집이에요. 저는 건축을 공부해서 집을 볼 때 구조나 변화에 대해 남들보다 많이 관찰하곤 해요. 이 집은 약 50 ~ 60년대 말에 처음 지어졌을 거라 추측됩니다. 집이 지어졌을 때는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죠. 비탈 위에 작게 지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조금씩 새로운 공간을 증축해나가 덧붙인 것이에요. 보통 집에 들어서면 바닥이 한 면으로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집 안에서 공간들의 바닥 높이가 계속 달라져요. 덕분에 오르락내리락 많은 운동을 하게 되곤 하죠. 하하.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집이 살면서 자라온 선명한 흔적이군요.

맞아요. 집 안에서 높이가 다른 바닥을 오르내리는 건 조금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그 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매력이었어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설계해 지어 놓은 집은, 사는 사람이 그 집이라는 것에 ‘구속’되기 마련이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나 할까요? 반면 어설프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변화시키고 만들어낸 집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죠. 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예요. 이런 이유들로 큰 매력을 느껴 이사를 오게 된 것이 바로 5년 전입니다.

재미난 집이네요!

그럼 어떤 계기로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게 되신 건가요?

이것도 처음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우리 집에 세 들어오시게 된 할머니 덕분이라고 할까요? 90세가 넘으셔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집 안에 높은 턱도 많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괜찮으실까 싶었죠. 계속 마음이 쓰여 이사 들어오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지내시도록 손을 보았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것을 고치다 보니 저것이 보이고, 저것을 고치면 이것이 보이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눈만 닿으면 개선하고 싶은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러다 주위 분들이 1층을 집이 아닌 카페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결국 지금의 모습으로까지 공사하게 된 것이죠. 하하. 이렇게 ‘어쩌다보니’ 공간을 만들게 되었네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할머니께서 많은 공을 세우셨네요.

맞아요. 바깥 담장 둘레에 쪽 둘러싼 꽃 화분들 보이시죠? 이거 모두 할머니께서 매일 물주시고 보살펴 가꾸시는 거예요. 같이 공간을 만들어 왔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싶어 이사 왔을 때부터 매일 바깥으로 좋은 음악들을 틀어왔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는데 여기서 기르는 식물이나 씨앗이 생기면 찾아오시는 분들과 나누기도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궁금해 하다가 결국 한번 쯤 들어와 보게 되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 꽃들 사이에서 ‘인문학 강좌’와 ‘전시’ 관련 안내를 살짝 보았는데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알고 싶어요.

네~ 저는 문화재관련 연구와 일을 오래 해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문화에 술방면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인지 이쪽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이다보니 자연스레 연결되고, 계속 일이 펼쳐지죠. 우선 ‘전시’를 상시적으로 열어 작품을 가깝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 작가분이나 강사분을 모셔서 정기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기획하고 있지요. 최근에 진행했던 주제는 <한국 근대 화가들의 빛나는 노력>,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걸작전> 등이 있어요. 다함께 미술관을 탐방하며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 공간에 모여 여러 차례 연속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사랑방이고, 또 어찌 보면 함께 배우는 학교이네요.

정말 멋진 공간이군요. 이렇게 건물의 역사와 현재 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듣다보니 모든 것의 구심점인 선생님께서도 왠지 독특하고 매력적인 일을 해오지 않으셨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제가 해온 일 중 재미난 것을 말하자면 ‘골목답사’가 있어요. 2012년부터 자연스레 그때그때 모인 사람들과 전국의 골목들을 누비며 탐사를 다녔지요. 시간이 꽤 쌓여 약 140여 회나 되었지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은 아녜요. 제가 최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자료집을 만들고 현장에서 강의를 하며 함께 걷고 보며 배우는 탐사였지요. 좋은 기회를 얻어 그 이야기들은 신문 연재와 <인문으로 만나는 도시골목여행>이란 책으로도 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동안 문화재보존 연구와 운동, 또 다양한 방면의 문화 관련 서적들을 집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커피 내리는 법도 배우게 되어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대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그러셨군요! 이제 공간과 선생님의 시간이 겹쳐서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공간 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대답해주셔야 해요. 선생님께 ‘천변풍경’이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음... 이곳은 인문학의 서식지이다.

“아니지, 이곳은 ‘김란기의 서식지’ 이지~!” 때마침 찾아오신 동네 단골손님 한 분이 대답을 고치신다. “아냐~ 아냐~ 인문학의 서식지로 해~” “그게 뭐 다를게 있나? 허허허.” 걸으며 드러난 유형의 공간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철학. 이 공간은 이끄는 이의 삶과 그 추구하는 방향을 고스란히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만 문을 닫고 10시~10시 언제나 환하게 모든 이를 맞이하는 공간. 무언가를 하나 집어가도, 또 무언가를 덧붙여 놓아도 잘 모를 것 같은 공간. 담장 둘레 각양각색의 꽃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풍요로움을 만드는 공간.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꺼리가 생겨나고 모습이 변화하는 공간. 언제나 공사 중인 곳,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나가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

‘여지’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인문학의 서식지, <천변풍경>’이었다.♣



스삭스삭

스치다

마음을

보내드리며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
연
수

2019년 연말을 지나면서 호되게 아팠다. 일주일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서 팔다리가 저리고 쓰러질 것만 같아 평생 처음 제 발로 찾아가 링거를 칭해 맞았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 위장이 음식물을 거부하니, 금방 죽지는 않을지언정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두어 달 고생 끝에 조금 나아졌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생활’을 해 나가는 자체가 여전히 버겁고 힘들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장의 눈치를 보며 두세 숟가락 먹는 게 다였다.

그런 상태로 봄이 왔다. 나에게 봄이란 뒷산에서 어린 쭉을 캐다 쭉국을 끓여 먹고 우람한 벚나무들이 줄지어 사는 곳에 가서 눈부신 벚꽃을 보며 떨어지는 꽃잎을 맞아 주고, 아버지 산소에 가야하는 계절이다. 경기도 양수리 공원묘지에 모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8년째다.

너무 황망히 가시기도 하였고, 그때 맏딸인 내가 아직 채 서른도 안된 때라 장례를 어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시절의 나에게 죽음은 너무도 먼 다른 사람의 문제였을 뿐이었었다. 엄마는 거의 정신을 놓고 계시던 상태여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친척들의 조언을 받아 이곳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다. 그 당시는 화장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나나 동생들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가신 아버지를 화장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컸었다. 해마다 아버지 산소로 소풍 가듯 그렇게 나들이를 하곤 했었는데 내가 기운이 없어지면서부터 조금씩 힘들어진다고 느껴졌다.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일을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산소관리를 책임지고 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물론 동생들이 하는 흉내는 내겠지만 그 아이들도 나이를 먹고 늙을 테니까...

다행히 가족 모두 찬성해 주어서 일의 진행이 빨랐다.

있던 산소를 없애는 걸 ‘개장’ 이라고 한다. 처음 들어본 단어다. 공원묘지 관리소에 개장신청서를 내고,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 해당 읍사무소에 접수하여 개장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고인의 주민등록 원초본 증명서이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이다.

원초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최초에 부여받은 번호와 다르게 등록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문으로 적혀있는 숫자를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리라. 두 가지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원초본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본적을 혹시 아냐고 묻는데, 결혼 전 사용하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본적이 내 입에서 줄줄 나온다. 깜짝 놀랐다. 대체 이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돌아가신 분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깔끔하게 정정해 놓고 싶었다. 번거로울지도 모르지만 해당 구청에 정정 신청을 넣어서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번호로 정정해두었다. 원초본 증명서에는 아버지가 평생동안 사셨던 주소들이 차례차례 명시되어 있다. 내 기억에 없는 주소도 있고, 내가 기억하는 동네도 있다. 두 장의 서류에 아버지의 삶이 짧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찾아간 양평읍사무소에서는 개장신청을 하러 온 내가 당연히 머느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아직도 이곳은 호적이 있던 그 시절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딸이 개장신청을 하러 오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인가보다. 허가서를 받고 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윤달에 개장을 하는 것은 아예 포기했었다. 아마도 상조 회사나 장례식장 등에서 선점하고 난 나머지 일반인이 예약해야 해서 생기는 일 같다. 게다가 인구대비 화장장 시설이 부족한 것도 원인인 것 같다. 원하는 날짜로부터 15일 전에 인터넷 예약창이 열리는데, 0시 기점에서 예약신청을 했으나 실패였다. PC방이라도 가서 해야 했나보다. 윤달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약하기가 힘들 줄이야. 결국 원하는 주말에는 예약을 못하고 평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겨우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는 음력 11월, 산소에 모시러 왔을 때 눈도 내리고 바람도 거셌었다. 다행히도 개장을 하는 오늘은 춥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화창했다. 산소를 정리하는 데 따라 올라가 봤다. 관 뚜껑을 열었는데 아버지의 시신은 마치 며칠 전에 묻힌 것처럼 그렇게 말짱했다. 몸을 감은 봉대도 하얗게 깨끗했고, 시신의 부피감도 그대로였다. 수분이 빠져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순조로운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관위에 덮은 청홍색 천도 빨아서 다시 써도 될 정도로 말짱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땅에 냉기가 흐르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상태가 그러하니, 화장장까지 모셔가려면 영구차를 불러야했다. 시신은 일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단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벽제 화장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오후 마지막 시간이라 많이 기다렸다.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화장장이 조금씩 조용해진다. 그곳에 앉아 기다리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29살 어린 딸이 차마 놓아드리기 싫었던 아버지를 비로소 오늘에야 보내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 없다. 여기서도 시간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고, 돈을 내고 줄을 서야한다. 접수대에 줄을 섰는데 앞사람 유골함의 이름이 아무개의 태아이다.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자식을 화장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팠다. 우리 차례가 다가올수록 북적이던 사람들은 차츰 돌아가고, 화장장은 텅 비고 호젓해졌다.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하는 나는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아마도 장례학과를 졸업했을 어린 직원이 정성스럽게 싸준 아버지의 재를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 따스함이 좋았다. 그래서 더 꼭 안아봤다. 납골당으로 가지 않을 경우를 위해 화장장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곳에 아버지의 유해를 뿌리기로 했다. 두 번째 보내드리는 거라 그런 것일까, 가슴은 빠근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개장을 마치고 며칠 후에 아버지의 산소 상태를 들으신 어르신이 냉한 산소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뜨겁게 화장해 주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나는 내가 게을러서 개장을 실행했다는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참으로 알팍하지 않은가! 그래 나는 그렇게 알팍하고 게으른 불효녀다. 며칠 후 나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곳에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꺼내 놓았다.

“아버지! 게으른 딸년이라 죄송합니다. 춥다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

아
버
지
의
바
다

함
동
갑

지금 생각하면 아득히 먼 옛날 일이다. 내 고향은 바닷가여서 산에 가면 찹, 고구마, 감자, 산딸기, 두릅, 복숭아, 감, 호두, 밤 할 것 없이 먹을 거리가 있었고 해변에 가면 갯가지 조개, 물고기, 게 등을 잡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살기 좋은, 공기 맑고 물 맑은 버스 종점이 있을 정도로 촌구석인 동네였다.

운송차가 읍내에서 몇 가지 공산품들을 싣고 비포장도로를 뚫면 흙먼지와 함께 털털거리며 한 시간 반을 와야 동네 구멍가게에 납품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1분만 가면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요즘에 비하면 그 시절은 자연 그대로의 삶이었다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원양어선 격인 중선배라는 배의 기관장으로 한 번 출항하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바다에서 생활하다 입항하셨다. 아버지는 형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버지는 고사리 같은 내 손을 꼭 쥐고 동네에 하나 밖에 없는 구멍가게에 나를 데려가셨다. 동네에 몇 안 되는 기와집이었던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맛난 것들을 바라보며 군침을 삼키곤 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구멍가게에 가게 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큰 놈으로 집어부러라”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집어보라는 뜻이었다.

내가 집은 것은 라면이었다. 포장지에 어떤 형제이야기가 그려진 라면이었던 것 같다. 작은 내 손에 라면을 쥐어주고 나서, 하루에 두 대만 다니는 버스를 타고 아버지는 출항을 위해 떠나셨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내 뒤에 줄을 서서 따라오며 눈을 반짝였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라면이 먹고 싶어서였다. 나는 누구에게 뺏길세라 라면을 가슴에 꼭 안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항아리 안에 길어 놓은 물을 냄비에 넣은 후 냄비를 곤로(등유를 사용하는 가열기구) 위에 올리고 나서 누가 오지 않나 밖을 살폈다. 어머니는 밭에 가시고, 형도 학교에 가서 혼자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 받고 싶지 않았다.

뽀글뽀글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나는 끓는 물이 반가웠다. 이제 라면과 스프만 넣으면 맛있는 라면이 완성되고 나는 꿈에 그리던 맛을 느낄 것

이다. 하지만 나는 그 라면 봉지를 열지 못했다. 너무 아까웠다. 이걸 지금 먹으면 내일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나는 결국 곤로의 불을 끄고 동구 밖 양지바른 곳에 앉아 라면을 바라보았다. 햇빛에 반짝이는 달밤의 두 형제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놀러올 것만 같았다.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었다. 저녁 먹을 시간이었다. 형과 나는 밥상 앞에 거리를 두고 마주앉았다. 형에게 라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깊은 고민을 하는 사이 어머니가 저녁상을 가지고 오셨고 나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밥을 워쨌 고것밖에 안 먹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일어서는 나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내 머리 속엔 온통 이불 속에 감춰둔 라면 생각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고 내 방으로 와 이불 속에서 라면을 품에 안았다. 형한테 보여주고 간식으로 끓여 먹자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여러 차례 하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라면이 없어졌다. 내가 병어리 냉가슴 앓듯 라면을 찾으러 온 방을 뒤지던 그 때 향긋한 냄새가 내 코를 찔러 왔다. 분명 라면 냄새였다. 순간 나는 울상을 지었고, 어머니의 말이 들려왔다.

“작은 놈아 라면 먹어라”

작은 놈은 돌쨌를 가리키는 사투리다.

“아부지가 작은 놈이 라면 좋아한다고 몇 봉지 더 사다놓고 갔어야”

어머니가 칭얼대는 나를 보고 웃으며 말하셨다. 밥상에 앉아 보니 라면 한 봉지 양이 아니었다. 나는 송글송글 맺힌 눈물을 닦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행복한 맛이였다. 라면을 또 먹으려면 아버지를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바다를 보면 아버지 얼굴이 그려지는 것은 라면 때문이었을까? 지금도 난 그때처럼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 때 맛봤던 라면 맛을 언제 또 느껴볼 수 있을까? ♣

중국인
며느리의
김치사랑

곡
효
여

2002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매운 음식을 싫어했던 내가 2년 후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요리학원을 한 달 정도 다니면서 한국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김치를 직접 담그기 시작했다. 완성품이 나오자마자 항상 남편의 회사로 보내 맛보게 했다. 남편은 내게 칭찬과 격려로 보답했지만 나는 내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담근 김치는 그리 맛있지 않다. 그 이후에는 아이도 태어났고 일도 아주 바빠서 10여 년 동안 김치를 담근 적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한국 생활 18년째 접어들면서 나는 김치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 “중매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시어머니시다.

우리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농부시다. 작고 여윈 몸으로 무거운 생활의 짐을 짊어지고 평생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난한 농촌에서 아들 네 명을 모두 훌륭한 인재로 키우셨다. 내 고향 중국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부모들처럼, 우리 시부모님도 항상 희생만 하시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다. 자식들에게 유기농 채소를 먹이시겠다고 고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추 이외에 감자, 고구마, 토마토, 대파 등 다양한 채소를 직접 재배해 오셨다. 그리고 그 채소들로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직접 담가 주셨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편찮으셔서 그러지 못하셨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14년 동안 김치를 얻어먹기만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치를 직접 담그기로 했다. 재료 준비부터 담는 과정까지 모두 한꺼번에 완성했다. 그 다음 날에 온몸이 쭈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매년 김장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시어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방법대로 김치를 처음 담가본 소감이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내 김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맛이 난다고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마다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 봤다. 반드시 한국인 입맛에 맞는 정통 김치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나는 대학 교수다. 학기 중에 매우 바쁘다.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녹음 과제를 들으면서 김치를 담글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집중해서 잘 완성했다. 김치를 다 담근 후, 2주에 한 번씩 시어머니께 직접 갖다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제 나의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동안 사랑을 받기만 했던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행복하다.

김치 담그기를 시작한 지 어언 6개월이 지났다. 배추, 깻잎, 배, 파, 고추, 무, 당근과 양파의 다채로운 색깔은 시각적 향연을 연출했으며 매실청, 멸치젓, 새우젓, 다진 생강과 마늘과 고춧가루는 미각을 자극하여 군침을 돌게 했다. 김치를 담글 때마다 나는 꼭 사진을 찍어 둔다. 내 눈에는 그냥 김치가 아니라 내 정성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시어머니께 보내 드려 그런 기쁨을 나누곤 했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명절이 될 때마다 항상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버이날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도 꼭 모시고 함께 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한 것 같다.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이후 우리가 집에 내려가는 일이 오히려 잦아진다. 시댁에 절대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나는 김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식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장조림, 우영조림, 연근조림, 도라지무침, 오이무침 등을 하나씩 배웠다. 외국인 며느리인 내가 만든 한국 김치와 반찬이 드디어 시댁 밥상에 올라왔다. 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막걸리 한잔하고 시댁 식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담소를 하는 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

큰 차이를 만든다

비슷한 것이 때로는 다른 것보다

클라라

우리는 때때로 비슷한 것을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것은 비슷하다고 표현한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를 여행할 때와는 달리 아시아에 속한 나라를 방문할 때면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그 나라사람들의 외모가 유럽인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나는 나와 비슷한 그들의 외모를 나와 같다고 착각했었던 것 같다.

비슷한데 비슷함 속에서 발견한 차이는 다르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차이보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였다. 잠시 일 관제로 방문했던 자카르타에서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포함한 그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나를 향한 주목과 관심은 꽤나 당황스럽고도 놀라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는 곳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인도네시아 지사에 몇 년을 근무한 직원이 말해줘서 알게 된 그들의 수군거림의 내용은 바로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궁금해했고 평소 단 한 번도 내 피부가 희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 아니 까무잡잡한 피부가 매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나에게 피부가 하얗서 잘 어울리겠다며 이것저것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백화점 점원들의 친절한 관심과 말에 웃음이 났다.

그때까지 살면서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비단 현지인만이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미 엘리베이터를 가득 채운 한 무리의 남성들을 보는 순간 나는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나는 나의 외국인 일행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마자 뒤편에서 남성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어느 나라 여자 같냐?”

그러자 또 다른 남자는 동료의 말에 호응하며 이렇게 말했다.

“글쎄... 홍콩여잔가? 일본여잔가?”

그러자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한 동료는

“야! 그러다가 저 여자가 ‘저 한국 사람인데요.’ 하고 뒤 돌아보는 거 아니냐? ”

그 말에 모두들 폭소를 터트리며 웃어댔다.

“에이. 그만해라.”는 한 사람의 말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성들은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인원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외국인 일행은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눌러서 그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마지막에 내리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Thank you.”를 외치며 내렸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대화를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나의 외국인 일행은 그 남성의 “Thank you”라는 말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박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구사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한국 말 중 하나인 “천만에요~”를 외치는 것이 아닌가... 그 상대 남성의 놀라는 시선과 나의 당황스러운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나는 많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들도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 그들이 실수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치미를 댔 나를 질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예 처음부터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본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어야 했나? 아니면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먼저 “저 한국사람입니다.”라고 했어야 했나? 그것도 아니면 중간에라도 “예. 저 한국사람 맞습니다.”라고 했어야 했나? 하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을 밝힐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저 침묵하면서 나름 그들의 대화를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즐겼던 것 같기도 하다.

내 평생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은 내게 비슷하다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히 다른 것보다도 때로는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집으로
가는길

김
준
엽

밤 12시. 지하철 막차를 탔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는 극히 적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켜다. 매일 숙제하듯 즐기던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려는 순간 열차 안의 불이 꺼졌다. 핸드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어 천장을 슬쩍 쳐다보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신이 하던 행동으로 돌아갔다. 자연스럽고 태연스러운 모습들이 적막하다. 저 세상 가는 열차를 탄 사람들 같다. 정말 저 세상으로 가는 열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곧 불이 들어왔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핸드폰 삼매경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가방을 감싸 안고 졸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은 다리를 까닥거리며 휴대폰을 가로로 들고 뭔가를 보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굳이 빈자리가 많은데도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

사람들을 구경하며 오던 순간 1호선 창밖으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1호선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감성이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창밖을 쳐다보지 않는다. 자기 손에 들린 자신만의 세상을 관조할 뿐이다. 씩씩하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느낌의 쓸쓸함이다.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이 사라졌다. 열차에는 나 혼자 앉아 있다. 방송으로 나오는 안내 음성만이 유일한 위로다.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동시에 글을 쓴다. 창밖으로 향하는 내 시선에 광고판이 들어온다. 합격은 역시 에듀윌 이라는 문구와 주거복지센터 광고가 눈에 들어온다. 지하철 노선도도 눈에 들어오지만 널모레면 마흔, 노안이 빨리 찾아온 나에게 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 슬픈 현실이다.

그 순간 창동역이 종착역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나는 두 정거장을 더 가야만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 정 안되면 택시라도 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오늘은 술을 많이 마셨다. 주량보다 반병을 더 마셨다. 친구 놈은 취해서 일찌감치 집에 갔다. 창동역에도 착했다. ‘찌이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열차에서 내렸다. 내리자마자 열차의 모든 불이 꺼진다. 하루가 끝났음이 실감 나는 순간이다. 짜증이 밀려왔다. 창동역은 계단을 올라가야 출구가 나온다. 몇 계단 오르자

숨이 찬다. 어느덧 널모레 마흔이다. 내가 느낀 쓸쓸함은 나이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허나 상관없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영화 '타짜' 를 그만 봐야겠다....

지하철역을 나오자 버스는 보이지 않고 온통 오렌지색 택시만이 가득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스정류소로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횡단 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데 지나가던 택시들이 내 앞에서 살짝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며 알 수 없는 시그널을 보낸다.

하지만 상관없다.
세상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니깐...
영화 '타짜' 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던가 해야겠다...

횡단보도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길을 건너 버스정류소에 도착하니 신호대기 중인 버스가 보인다.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길 간절히 바랐다. 신호가 바뀌었다. 젠장, 버스는 반대쪽으로 갔다. 오토바이가 있었다면... 오토바이를 타면 음주운전이 되겠지? 서 있으려니 다리가 아프다. 정류소에 의자는 없고 시뻘건 소화전만 보인다. 혹시나 소화전에 엉덩이를 살짝 걸쳐 기대 보았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 또 다시 택시가 내 앞에서 살짝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쏜살같이 나를 지나쳐갔다. '따름이' 라도 있으면 타고 갈 텐데,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이사 온지 얼마 안돼서 지리를 잘 모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버스가 올 기미는 안 보인다. 아무래도 막차는 끝난 것 같다.

걸어갈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음료수 자판기가 보인다. 술안주가 오늘 첫 식사였기에 허겁지겁 먹어서인지 배가 살짝 아프다. 소화 잘 되라고

사이다를 뽑을까 하다 육백 원짜리 매실음료가 보였다. 지갑을 꺼내 현금을 확인해보니 팔만원이 들어있다. 다행히 천 원짜리 지폐도 몇 장 있어서 매실음료를 뽑고 사백 원을 거슬러 받았다. 소주 한 잔을 마시듯 원 샷을 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택시 타는 것을 싫어한 나는 밤공기도 마실 겸, 소화도 시킬 겸 걷기로 했다. 매실은 정말 훌륭한 열매다. 걷기 시작한지 이백 미터도 안돼서 금방 소화가 되었는지 방귀가 나왔다. 방귀를 끼는 순간에는 내 걸음이 살짝 빨라지는 느낌도 들었다. 추진력 같은 것일까? 계속되는 추진력으로 집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던 순간 반대편에서 한 쌍의 커플이 걸어온다. 배에 힘을 짝 주고 어금니를 살짝 앙 다물었다. 옆으로 커플이 스쳐지나가고 3초 뒤 우렁찬 소리와 함께 지독한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뒤돌아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상관없다.

소리는 귀보다 빠르니까...

타짜는 반드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방귀를 뀌어대다 보니 갑자기 인생철학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말이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길을 잘 안다. 익숙한 길로 다가가니 웬지 모르게 반가워진다. 큰길에 접어들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겠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미완의 완벽을 꿈꾸며

권
남
옥

코로나가 나의 생활을 바꿨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내 삶 깊숙이 끼어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 머지않아 그칠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우한의 일은 나랑 상관없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6개월 이상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어디 예측이나 했겠는가?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가 눈을 혹사하여 시력이 확 떨어지고 결국 안경을 쓰게 될 줄을 꿈엔들 알았겠는가?

평소라면, 아이 눈이 침침하다고 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병원에 발을 들이기가 무서워 시력검사를 하지 않고 몇 달을 버티다, 겨우 안과에 데려갔더니 안경을 쓸 정도가 되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실외활동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아이에게 바깥 활동을 많이 시키라고 권하신다. 아이가 바깥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학교까지 안가니 더더욱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자꾸만 가까운 것만 보게 되니 시력이 떨어져 안경까지 쓰게 됐는데, 이거야말로 내가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부분이다.

친한 어른신은 몇 달 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온갖 모임에 나가기가 저어되신 그 어른신은 거의 집에만 계시고, 가끔 가까운 산에 가서 산책이나 하실 뿐이다. 친구 한 명은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싫어서 아예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지인 중에 몇몇은 오히려 바깥 활동을 즐기고 있다. 영화관을 가도 한산하고 식당을 가도 한가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한다! 나는 미술관을 갔다.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그림을 포기하려니 기운이 빠졌다. 그림 구경도 못하나 싫어서 나갔다. 마스크를 쓰고 내가 마실 물을 따로 챙겼다. 마스크를 쓰고도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친구가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다. 공연장은 거의 만석이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삶을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한다고... 삶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야 없지만, 두려움이라는 녀석 때문에 삶도 아

니고 죽음도 아닌, 삶과 죽음의 중간쯤 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언제나 완벽한 적은 없었다. 바깥 활동에 완벽한 적도 없었다. 언제든 삶에 한 오라기의 두려움조차 없었던 적은 없었다. 미세먼지가 항상 죽음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독감이 유행했고, 폐렴이 돌았고, 장염이 퍼지고, 감기가 기승을 부렸다. 완벽한 일상을 좇다가는 일상 자체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가 내 일상을 나쁘게만 바꿨을까? 코로나는 맑은 공기를 덩으로 가져왔다. 코로나블루라는 우울한 시대에 그 블루(blue)가 정말 파란 하늘을 가지고 왔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경기(景氣)도 좋지 않으니 우울감이 증가하는 반면, 사람들이 활동과 소비를 자제하면서 하늘은 파랗게 되었다. 수 년 동안 보지 못한 봄철의 파란하늘을 요즘은 매일 볼 수 있다. 투명한 하늘에 몽게몽게 떠 있는 구름은 웅장한 예술작품을 펼친다. 무심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마구 달려든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에서 말한다. “도시로부터 들려오는 환희의 함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유는 이 기쁨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페스트균은 절대 죽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으며, (중략) 때를 기다리다가, 인간들에게 불행도 주고 교훈도 주려고 저 쥐들을 잠에서 깨워 어느 행복한 도시 안에 다 내몰고 죽게 하는 날이 언젠가 다시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오랑(페스트의 무대가 된 도시)의 일상을 뒤흔든 페스트가 언젠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리유’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멈칫하게 만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주춤했다가도 다시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들지 모른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내 아이의 시력도 완벽하지 않아 안경의 도움을 받게 됐다. 코로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다. 완벽해야만 하는가? 완벽하지 않아도 삶이다. 우리의 삶은 미완(未完)의 완벽(完璧)이고, 코로나가 함께여도 삶은 생동하길 바라본다.♣

코로나를 생각하다

소설 『페스트』를 통해서

오
숙
현

2020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전염병 전문가나 방역당국 공무원이라면 ‘메르스’ 나 ‘사스’ 등 전염병의 폐해를 겪으며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각종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깊숙이 공격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지만 누가 알았으랴.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서도 수만 마리의 쥐들이 건물과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의학의 역사를 아는 몇몇 사람들만이 겨우 페스트를 염두에 두었다. 책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이기도 한 의사 베르나르 리외는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의사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한 끝에, 힘들게 공식적으로 페스트를 인정했다. 페스트는 곧 죽음을 의미했고, 의사는 진료와 치료를 하는 직업인이면서 동시에 한 도시를 폐쇄된 죽음의 거대한 구역으로 전락시키는 ‘전염병’ 곧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현장을 목격하고 사실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주관이나 감정이 배제 되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페스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시당국의 판단에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이 먼저여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임을 까뮈도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잘 알고 있기에 소설 『페스트』를 통해 코로나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간 입출국을 제한하거나 폐쇄했다면 페스트의 도시 오랑에서는 오랑 밖의 세상을 페스트로부터 지키기 위해 폐쇄뿐 아니라 전보를 제외한 모든 통신조차 불허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의 공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별의 감정으로 신음해야 했다.

오랑에서 페스트로 인해 속수무책 죽어가는 사람들과 시체 더미들의 처리, 그리고 감염자들로 인해 격리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 페스트와 맞서 싸우는 봉사자들뿐 아니라 치료나 예방을 돕는 혈청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부분도 소설은 다루고 있다. 오늘날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이 백신개발이라고 믿고 있다면, 오랑 시민들과 의료진들은 페스트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언젠가 끝이 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을 기

대하는가에 대해서는 페스트시대와 코로나시대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임이나 원인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다. 페스트는 역사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양상으로 수많은 죽음을 몰고 왔었기에 까뮈는 페스트균은 죽지 않고 살아서 언젠가 다시 공격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신종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살아남을지언정 백신만 잘 개발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랑에서 페스트에 대한 인정이 늦어 소수의 감염자들을 신속히 격리, 치료하지 못해 더 큰 피해(재앙)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조차도 감염자 진단부터 늦어져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면이 드러나 안타까운 역사를 쓰고야 말았다. 반면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현실 파악을 한 후 정보를 국민과 공유한 행정력과 불편한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가지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 행동수칙을 지키는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피해를 유지하면서 코로나의 난국을 견뎌나가고 있다.

흑자들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자연을 훼손한 데 대한 자연의 응징이라고 말한다. 종교인들은 인간 세상에 대한 신의 심판과 회개의 기회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불안한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종교나 미신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한다. 『페스트』에서도 비슷하게 신부의 절절한 설교를 통해 신의 부르심을 호소하는 한편, 자연의 반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겠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지금까지 쌓여 있던 응어리를 깨워 내, 그간 속으로만 끓고 있던 종기와 피고름들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만 같았다.’♣

명이
사라질거야

오
영
주

특수교사가 쓴 일본 동화 「멍」*에는 장애로 인해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히사예와 학교에 다니는 기미코라는 아이가 나온다. 기미코는 말하기 힘들어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히사예를 찾아와서 놀다가 가는데 기미코가 가고 난 후 히사예의 몸에는 멍이 남는다. 히사예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기미코를 어찌 대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진다. 히사예 엄마는 우연히 주변 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기미코를 구하게 되고, 기미코는 히사예와 놀기 위해 찾아온다. 기미코가 간 후 히사예의 몸에 멍이 또 남는다. 하지만 히사예 엄마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힌다. 히사예가 돌아가는 기미코에게 쥐고 있던 나무 블록을 던지지 않고 기미코를 내치지 않았듯이.

최근에 나는 내 SNS에 베란다 창틀 닦느라 수고했다며 나 자신을 위로하는 글과 멍든 팔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나를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댓글이 달렸다. 당시에 든 멍은 흔적 없이 사라져서 이제는 사진을 봐야만 멍든 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혼자만 알고 위로하면 됐지, 왜 게시물을 남겼을까?

온라인 네트워크는 내 공간이지만 나만의 공간이 아니기도 해서 소중하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온라인상의 소통이 많아졌다. 온라인에서는 대면하지 않고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사태가 심해지면 네트워크가 끊기고 의견이 다른 상대를 향해 집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인다. 몸에 난 멍은 없어지지만 마음의 멍은 지워진 듯 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떠올라 마음을 복잡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 괴로움을 준다.

앞에 얘기한 「멍」이라는 작품은 독서 클럽 튜터를 할 때 한 학생이 읽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동화이다. 기미코가 정말 히사예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히사예와 엄마는 왜 기미코를 야단치거나 쫓아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니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과거의 기억은 뚜렷하지 않다.

* 오카 슈조, 「멍」(『우리 누나』), 웅진주니어

예전에 연극을 보고 의문이 생겨 원작을 찾아봤던 기억은 있는데 무엇이 궁금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열심히 줄을 치며 읽었던 희곡 책이 있고, 책을 읽은 학생과 대화하며 소통했던 기억은 있지만 궁금했던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연극 제목인 ‘칼리굴라’와 같은 별명을 지닌 로마 황제는 정말 그렇게 잔혹한 폭군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을까? 내용 보다는 배우의 인상이 남는다. 악역을 많이 맡았던 그가 요즘 온라인상에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배역 이미지와 달리 푸근한 인상을 준다고 한다. 연극 내용은 떠올리지 못해도 그 때의 인상과 관객으로서 들었던 느낌은 기억난다.

「멍」의 기미코는 주변 아이들의 폭력에 노출된 아이였다. 물론 그것이 본인의 폭력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랑받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멍을 남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자신이 소중하게 대우받는 것을 아는 이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 히사에 엄마는 생각한다. ‘히사에의 몸에 멍이 하나 생기는 날, 기미코의 몸에도 멍이 하나 생겼겠지. 기미코의 몸에서 멍이 사라지는 날, 히사에의 몸에서도 멍이 사라질 거야.’ 히사에 엄마는 작은 벌레 소리나 먼 곳의 비행기 소리를 인지하는 히사에의 능력을 알아보고 칭찬하는 기미코를 인정한다.

나는 나를 위로하는 글에 이어 나를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린다. 상대방에게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했음을 알린다. 마음이 말랑하고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음을 전한다. 바이러스가 퍼지듯 사랑도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 멍이 들어도 회복될 수 있도록. 거창한 의제와 내 의견의 선명함을 드러내는 논쟁들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정의를 말하는 것보다 내 옆의 삶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더 어려움을. 낯선 의견을 견어내고 소박한 일상 속 사랑의 씨앗을 온라인 공간에 담아본다.♣

코
로
나
19
와
나

김
은
순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준비한다. 일기라고 말하기 어려운 끄적임이 쌓이다보면 어느새 다이어리는 채울 공간이 줄어들어 있곤 했다. 하지만 2020년 올해는 다르다. 적어도 하루건너 하루 꼴로 일기를 꼬박꼬박 쓰고 있다.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할 말이 많은가 보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며 풀어버렸을 이야기조차 내 일기장에 쌓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1월에는 방학 중인 아이들과 코로나로 인해 갑갑하고 두려운 심정에 대해 표현한 글이 주를 이루었고 독서에 대한 기록도 빠지지 않았다. 2월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집에 머무는 일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집에 있으면서 책 소개 유튜브를 보거나 밑줄 그으며 책을 읽었다. 책을 필사하고 필사한 글에 대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었다. 잘못된 독서법을 방법의 차원에서 바꿔보기도 하며 욕심내지 말고 찬찬히 하자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아이들의 개학이 미뤄지며 내 삶까지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책을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자고 먹고 핸드폰만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사고마저 단순해졌다. 카뮈의 『페스트』에 나오는 의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다던데... 그냥 하루하루를 건디고 있었다.

외부활동이나 운동을 못 하고 걷는 일도 줄어드니 허리가 아프고 몸무게는 늘어났다. 그런 생활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까지 굳어져 갔다. 그러다 다행히도 스스로를 달래면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리’라는 걸 시작하게 됐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나눠 줄 것들은 나눠주었다.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깔끔해지는 집을 보면서 작게나마 희열을 느꼈다. 지금의 내 삶에서 의미를 찾자고, 지금 이 삶에서 변화를 갖자고 다짐했다. 머릿속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자는 다짐을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을 때, 책 속에서 행복을 찾자고 외쳐보았다. 색연필로 그림도 그렸다. 꽃들을 그렸다. 예쁜 꽃의 밝은 기운을 소유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며 ‘왜?’란 의문을 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한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그 느낌을 적어 본다.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삶이 현재에 추가 되어야 함을 새삼 느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적응하면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빨리 적응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수월하다.

5개월의 불규칙함이 규칙이 되었다.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나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어색함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도 개학을 하여 등교를 한다. 등교하는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났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몇 차례 미뤄졌던 개학을 하게 된 것이다. 등교 준비를 하면서 새삼 아침이 이런 분위기였구나 싶었다. 인간은 이렇게 또 적응하는구나 싶었다.

마스크를 쓴 아이의 모습을 보며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랐다. 2020년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역시 쉬이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리라. 이 시간들이 자신을 더 곤추 세울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길 간절히 바라본다. 조금이라도 빨리, 모두 건강히 이 시간을 견디고 지나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이다지도 무능력한 인간이 그동안 지구에게, 자연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반성하며, 작은 환경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길 밖에 없구나 싶다. 맑은 날씨만큼 슬픔도 크지만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엔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는 열정과 희망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

#. 내 옆에 (코)로나씨

by 엄마곰



로나씨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더 커졌다. ^{재미도 없이} 로나씨를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을 주어진 머로 살았다. 온라인 수업, 삼시세끼, 마스크 생활, 공간에 다리를 다쳤다. 김스로 더 집에만 머문 시간들. 씨앗을 심고, 가꾸다 보니, 꾸럼꾸럼 토마도가 열렸다. 오래 머물러, 서로 바라보고, 보듬던 시간... 스르륵 로나씨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끝)

o와 o

사진 | 글 차정미



○

이것은 빛을 차단하면서 안착한다. 몸이 가만히 쉬는 시간. 없는 시간.

없는 사람. 사라지는 기분이 좋다. 언제든 나는 사라질 수 있다.

긴긴 어둠. 긴긴 통로. 그 속에 동굴이 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캄캄하다.

시간도 공간도 느껴지지 않는다.





00

으깨지는 발음들, 허공에 전율되는 소리. 다시 또박또박 힘주어
말하지만 소리는 자꾸 흩어지고, 언어가 되지 못한 소리들.
나는 간절히 무언가를 떠올리며 한 음 한 음 소리를 내뱉었다.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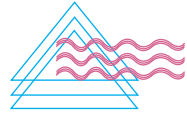
눈을 뜨면 다른 세계가 펼쳐졌고 밖의 세계는 내가 밖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과 밖은 다른 세계지만 감각은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가 밖인지 저기가
밖인지. 살아있는 낙지를 탕탕 칼로 내리치면 잘린 발들이 미친듯이
꿈틀거렸다.♣



오리
조리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정릉과 김교신 선생



글 김가희

1945년 4월 25일, 김교신 선생은 44년 짧은 삶을 마감한다. 한반도 전체가 해방의 환희에 휩싸인 1945년 8월 15일, 김교신 선생의 제자 류달영* 선생은 “미칠 듯이 기뻐던 그 날에 우리들은 선생님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회고한다. 해방을 100일 남긴 채 돌아가셨다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다 설명할 길 없다. <성서조선(聖書朝鮮)>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후 선생은 흥남질소비료공장에 자원으로 취직하여 징용된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 취약한 위생환경과 긴 노동 시간으로 힘들게 버텨가던 노동자들을 위해 주택관리,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교육 활동까지 희생과 노력을 아

* 김교신 선생의 애제자. 수원농림고등학교(현재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공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학자이며 사회운동가이다.

** 『김교신을 말한다』. 노평구 엮음. 부키. 2001, 6.

*** <성서조선>은 기독교 사상가인 김교신이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1927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한 무교회주의 기독교계 월간 잡지이다. 1942년 3월호(제158호)에 실린 권두언 “조와(弔蛙)”(얼어죽은 개구리를 애도한다는 뜻)에서 일본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조선을 개구리에 빗대었다고 본 조선 총독부는 성서조선을 강제 폐간하였다. 이때 그동안 발간된 성서조선의 전편을 압수 폐기하는 조치의 성서조선사건을 일으켜 전국의 <성서조선> 독자 수 십만이 검속되었으며, 김교신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C%84%9C%EC%A1%B0%EC%84%A0>)

**** 일제강점기 말기에 나이가 들어 일본군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국내 탄광이나 공장에 강제 연행되어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겨레사랑 성서사랑 김교신선생』, 서정민 지음. 말씀과 만남. 2002, 139)

끼지 않던 선생은 공장에 전염병이 발병하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며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본인이 전염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다.

해방이 되자 선생의 친구인 함석헌 선생은 김교신 선생이 살던 서울 정릉의 옛 집을 찾아 친구를 그리워하며 다음의 시를 짓는다.

이 시내 마시면서 이 바람 쏘이면서/ 흐리운 이 세상 맑히자 애쓰던 마음/
그 마음 어디 찾을까 북한산만 높았네

시냇물 흘러가고 솔바람 불어가고/ 산사의 저녁종이 울리어 가는 저녁/
다녔던님을 그리며 나는 어딜 가려노 (앞부분 생략)

시에서 보듯이 정릉 선생의 집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로는 날마다 새벽기도를 드리러 올랐던 북한산이 펼쳐져 있다. 선생이 1936년 정릉으로 이사할 결심을 한 데에는 개천과 주변의 산이 한몫했던 것을 선생의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휴일이어서 모든 가족이 시외로 나가 북한산 기슭의 정릉리를 산책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을 망설였었다. 그러나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과 한적한 주위의 산과 숲의 매력에 끌려서 드디어 정릉리로 이사하기를 결정하다. 만일 여기까지도 발전한답시고 환경이 요란하게 된다면 북한산성 안으로 다시 이사할 각오를, 지금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집이다.

- 1926년 3월 21일 (토) 흐린 후 맑음*

한적한 자연의 매력에 이끌려 정릉으로 오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선생은 정릉역시 개발이 되거나 앓을까하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당시에도 발

* 일기 본문은 『김교신 거대한 뿌리』. 박찬규 엮음. 익두스, 2011. 앞으로 일기 본문은 날짜만 표기함.

전이란 명목으로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선생은 그것을 환경이 요란하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김교신 선생은 정릉 집 정원에 나무 20 그루를 심었는데 1936년 봄에만 1천 그루의 나무를 직접 심었다고 한다. “매년 한 사람이 한 그루씩이면 2천만 그루, 10 그루씩이면 2억 그루, 100 그루씩이면 20억 그루를 봄마다 심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불과 10년에 헐벗은 산하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니 하고 상상해본다.”**고 쓰고 있어 나무 심기 또한 잃어버린 조국 조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릉에서의 첫 밤에 대한 묘사는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취 뿐 아니라 선생의 유머감각도 엿볼 수 있어 유쾌하다.

오전 중 정릉리로 이삿짐 운반하다. 정릉리의 첫 밤. 마침 달이 차오른 밤에 약사사 종소리조차 청아하거나와 단 모기가 많음은 내 일생 이곳이 처음이다. 덤벼드는 모기는 모조리 암컷이라고 하나 그 당당한 태도는 일등군 대보다 몇 십 배 더하니 쫓아내면서도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1936년 5월 7일 (목) 맑음

극성인 모기떼를 군대에 비유하는 것을 보니 일제강점기 때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 전쟁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덤벼드는 모기떼에서 강력한 군대를 상상하는 일은 무기력한 조선과 조국의 해방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선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만하다.

선생은 직장인 양정중학교가 있는 공덕리까지 자전거로 왕래하였다. 오랜 만에 시내버스를 탈 일이 생긴 선생은 가솔린 냄새 때문에 메스꺼움을 느끼며 “산간의 맑은 공기가 아니면 두통을 느끼며, 계곡의 맑은 물이 아니면 몸 씻기에 더러움을 느끼니 우리도 어지간한 시골뜨기가 된 셈”***이라 말하는데, 선생에게 정릉은 물 좋고 산 좋은 시골이었다. 시골 같은 정릉에서 선생은 농사를 제법 크게 지었다. 이웃 사람들이 선생 덕 농

** 1936년 4월 23일 (목) 맑음

*** 1936년 8월 20일 (목) 비

사를 구경하러 와서 감탄을 했다고 한다. 동네 노인들이 토지는 주인이 따로 있는 듯하다고 칭찬을 할 때 선생은 “돈으로 땅을 사는 일과 사법 관청에 등기 수속하는 일이 토지의 주인 되는 일이 아니요, 흙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땀 흘리는 일이 그 흙,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선생의 이런 생각은 토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부동산 과열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비춰볼 기준 및 문제의식이다.

장맛비가 밤새도록 쏟아 부은 칠월칠석날 정릉 집 앞 냇가를 건너며 선생은 별세계에 온 것 같다고 기록한다. “우리의 살림 전체 모습이 서울 살림과는 다른 것이지만, 시냇물이 큰 강과 같이 세차게 흐르니 더욱 서울과 우리 집 사이에 구분을 확연하게 하는 듯하여 내심 만족한 마음이 든다. 서울아 물러가라, 인간주의여 퇴각하라.”^{**}고 쓰고 있는데 인간주의를 퇴각하라는 선생의 명령이야말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경고로써 농업을 중시한 선생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적 이상을 정릉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선생에게 정릉과 북한산 일대 전부는 훌륭한 예배당이였다. 보토현을 넘어 구기리에 류영모^{***} 선생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한 묘사를 보면 하늘과 달과 별, 계곡 소리에서 선생은 엄숙한 자연의 교향곡을 듣는다.

달밤에 북한 산록 계곡을 거슬러 보토현에 오르니 가을 하늘에 가득 찬 달빛, 별빛과 묵묵히 솟은 북한의 승엄, 가을벌레의 교향악에 잠든 계곡의 신비, 침답이 높아 솟은 교회당을 소유함이 없고 ‘파이프오르간’의 아악을 못가진 무교회주의자에게는 이런 데가 가장 엄숙한 예배당이다. 꿇어 엎드려 기도를 아뢰고 우주를 진동하는 대지의 교향곡에 맞추어 방악무인의 태도로 찬성가를 외우면서 하산.(1936년 9월 1일 (화))

* 1936년 8월 25일 (화) 비

** 1928년 7월 7일 (목) 비

*** 류영모(柳永模 1890년 3월 13일 ~ 1981년 2월 3일, 서울 출생)는 한국의 개신교 사상가이며 교육자, 철학자, 종교가이다. 호는 다석(多夕)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5%98%EC%98%81%EB%AA%A8>)

한적한 곳으로 이사한 까닭이 고요한 야외 기도터를 찾기 위해서라고 언급한 김교신 선생은 자신의 집과 북한산 주변을 다 예배당으로 삼았으며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네 야학에서는 소와 송아지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김교신 선생은 1938년 정릉리 1구 교풍회장에 이름을 올린다. 면장의 지정에 의해 맡은 일이었다. 교풍회 중앙이 친일 관변단체이기는 했지만 선생은 일을 거절하지 않았고 자정이 넘게까지 교풍회 총회 준비를 했던 일화를 찾아볼 수도 있다. 교풍회 일과 연관해서 북한학원을 창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교사를 직접 모셔오기도 한다. “정릉리 주민은 최저급의 학원에 초고급의 교사 두 분을 모시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학원 경영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가다듬었다고 적고 있다. 북한학원은 1938년 11월 7일 개학을 맞이하는 데 “신입생 수 합계 40명, 학부형 및 동민이 다수 참석했으나 야학 부인 대부분은 부끄럽다고 참석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은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 당시 시대상을 느끼게도 한다. 교풍회 일은 선생이 없으면 진행되는 행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함께 일할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자 선생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사임을 하지만 그럼에도 동네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방관하지 못하고 동네일에 나섰다. 동네에 치성당 이전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 간부 일동이 책임을 지고 총사직하는 일로 인해 선생은 자연스럽게 교풍회 회장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교풍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치성당 문제도 교풍회에서 다뤘다는 기록을 보면 동네일이라는 게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선생의 일과 일상에 대한 자료들은 선생이 쓴 일기가 있어서 알 수 있다. 선생은 일기를 열 살 때부터 썼다. 어려서부터 쓴 일기는 30여 책이 되지만 중일전쟁(1937년) 발발로 전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일기를 소각하였다. 학생들에게 일기 쓰는 습관을 길러준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

**** 1938년 10월 31일 (월) 맑음

***** 1938년 11월 7일 (월) 맑음

었는데 한 학생의 일기가 문제가 되어 화가 그 학생 뿐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교에까지 미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 선생은 30여 책의 일기를 모조리 소각하게 된다.* 다행히 소각되지 않은 1932~34년 사이의 일기 두 권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두 권의 일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선생의 일기를 접할 수 있는데 <성서조선>에 실렸던 동인의 소식난이 1929년 8월부터 <성서통신> 난으로 이름이 바뀌고 선생 홀로 1930년 5월(제16호)부터 <성서조선>의 발행 책임을 맡게 되면서 17호부터 자신의 일기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선생은 자신의 일기에 손수 <일보(日步)>라 적고 번호를 매겼는데 일보라는 말은 “하루하루의 삶(걸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날마다의 걸음(삶)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선생의 스승인 우치무라 간조***의 “일일 일생주의”를 실천한 것이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삶의 여정을 일 년 단위나 나이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일들이 있다. … 삶을 나이로 헤아리기보다 날로 헤아리는 것이 삶의 긴장도를 높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였고 <성서조선>에 공개하였기 때문에 선생의 일기는 항상 검열을 의식하며 씌어졌다. 하루의 일을 담담하게 기록한 선생의 일기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를 새길 때 선생의 삶과 이상, 철학 및 조국을 위한 비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짧은 지면이라 선생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써내려 가다보니 어느 순간 정릉과 선생 삶의 조각을 맞추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무교회주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한 종교인, 사상가,

* 1939년 2월 22일(화) 맑음

** 『김교신일보』, 김교신 지음. 김교신기념사업회 엮음. 홍성사, 4쪽

*** 우치무라 간조(일본어: 内村鑑三, 1861년 3월 26일 - 1930년 3월 28일)는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이다. 서구적인 기독교가 아닌, 일본적인 기독교를 찾고자 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다.(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B9%98%EB%AC%B4%EB%9D%BC_%EA%B0%84%EC%A1%B0)

**** 『김교신일보』, 김교신 지음. 김교신기념사업회 엮음. 홍성사, 4쪽

출판인, 교육자이며 독립유공자”*****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김교신 선생에 대해 말하려면 이야기가 끝이 없다. 그 많은 이야기들은 아쉽지만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출판된 많은 책을 참조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함석헌 선생의 시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함석헌 선생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서 “그 사람”은 김교신 선생일 게다. 이 시의 주인공인 김교신 선생이 어떤 사람일지 느끼며 시를 읽어보길 바란다. ♣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하 생략)

***** <다음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3g1470b>

독립영화,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글 조이에환*

나는 독립영화, 그 중에서도 독립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 블록버스터 혹은 상업영화를 딱히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객 점유율이 상업영화 대비 1/10 도 채 안 되는 독립영화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를 상업영화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율로 감상하는 나는 분명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어색하진 않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처참한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이 영화들을 나는 왜 좋아하는 걸까? 남들이 좋아하거나 인기 있는 것은 일단 피하고 보는 일종의 ‘홍대병’ 인걸까? 아니 그보다, 독립영화는 대체 뭘까? 그냥 99%가 그 <자전차왕 엄복동> 보다도 더 쫄딱 망한 ‘망작’ 들을 일컫는 말일까?

사실 ‘독립영화’ 를 정의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독립 혹은 영어로 ‘인디’ 라 불리는 개념은 무언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떠한 콘텐츠나 정신, 경향 등을 일컫는데, 이 때 ‘무언가’ 는 보통 ‘자본’ 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독립영화라고 하면 주제, 작가주의, 예술성 등의 측면보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을 우선적인 전제조건, 즉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독립영화의 출발은 이러한 의미와는 조금 달랐다. 독립영화 개념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이 또한 필자 개인의 주장임을 밝힌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1980년대 말, 영화제작단체 ‘장산곶매’ 의 <오꿈의 나라>, <과업전야>와 같은 작품이나 역시 제작단체인 ‘푸른영상’ 의

* 영화 <불빛 아래서> 감독

〈상계동 올림픽〉, ‘서울영상집단’의 〈삶의 자리, 투쟁의 자리〉 등의 다큐멘터리의 제작 배급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이 같은 작품들은 만드는 것조차 터부시 돼 왔으며 배급과 상영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다루고자 하는 소재나 주제를 ‘검열당하지 않고’ 맘껏 표현하였으며 극장이 아닌 대안공간에서 (불법으로) 알음알음 상영한 것이 한국 독립영화의 시작이었다. 초기의 한국 독립영화는 ‘검열-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이어지는 중국의 ‘지하영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 기준으로 상업영화와 구분하는 의미는 점차 사라진다.

1997년 ‘서울영상집단’의 작품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대략의 상황과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독립영화가 90년대 말 즈음하여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립영화가 관객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던 시기를 벗어나 관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다루는 주제나 상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타의 상업영화와 구분되던 ‘독립영화’의 개념이 모호해진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독립영화’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상업영화’와 구분되는지 그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향적으로 ‘(아직) 덜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며, ‘3D 아이맥스’ 등의 영화가 없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비단 꼭 그렇지만도 않다. ‘독립영화’로서 상영되는 외화의 경우엔 구분이 더 어려운데,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켄 로치 감독의 영화가 ‘독립영화’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사실 (독립)영화 제작자 비평가 사이에서도 “어떠한 영화가 ‘독립’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존재한다. 가장 넓게는 3-4대 제작 배급사(CJ, 롯데, 메가박스 등)로부터 투자 제작 배급되지 않은 작품들을 전부 독립영화로 인정하는가하면,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나 각종 영화제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작품들조차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소재 주제나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작품들과 명확히 차



별되는 작가주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독립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며, 더욱 특별한 누군가는 관객으로부터의 독립, 즉 제작과정에서부터 관객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작품이나 홍보를 하는 모든 작품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통용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제작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작비 10억 이하의 영화를 독립영화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은 때때로 30억이 되기도 하고, 더 낮아지기도 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영화가 제작 배급 그리고 극장상영에 있어서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전 같으면 블록버스터 수준의 예산인 10억~80억 수준 예산의 영화는 100억대 이상의 영화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그런 영화들조차 독립영화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제작할 당시 약 400억원이라는 한국영화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했음에도 미국에서는 독립영화 규모의 예산으로 평가받았다는 말이 수긍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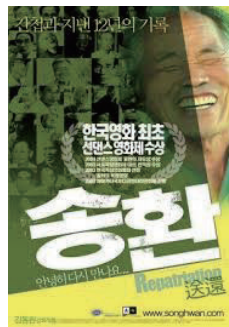
결국 독립영화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한다. 여태껏 말해 놓고 갑자기 “앵?” 소리가 절로 나올 말이지만 어떤 작품이 독립영화이고 상업영화인지는 이처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저예산영화, 예술영화, 다양성영화 등 서로의 범주와 기준을 넘나들고 혼용되며 개념은 더욱 복잡해졌으니, 사실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독립영화 범주 언저리에 드는 것 인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난 ‘독립영화(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내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다.

대다수가 외면하는 독립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남들이 좋아하는 걸 피해보려는, 흥대병스러운 이유는 아니다. (공교롭게도 독립영화들이 인기가 없을 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뮤지션으로 R.A.T.M.과 마릴린 맨슨(Marilyn Manson)이라는(인디밴드가 아니다!) 밴드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 아마도 내 인생

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이 있다. 바로 R.A.T.M.의 뮤직비디오를 만
들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마릴린 맨슨이 등장하는 영화 <볼링 포 콜럼바
인(Bowling For Columbine)>이다. 단지 좋아하는 뮤지션과 관계가 있어서
찾아본 작품이었으나 해당 작품이 내게 준 충격은 굉장했다. 그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주제 - 미국의 총기문제와 군수산업과의 연계, 폭력과 공포의
정치 - 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무
언가 불타오르는 느낌. 심지어 (아직도 통용되는 개념인) ‘다큐멘터리는 재
미없다’ 는 인식을 단박에 깬 정도로 영화 자체가 재미있었다! 강렬했던 <볼
링 포 콜럼바인>의 감상은 내 독립영화 사랑의 시작이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런 작품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런 작품이 한국
작품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
고 <송환>을 보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작품들로 관
심이 이어졌다. 따지고 보면, 독립영화라서 좋아했다기보다는 관심 있는 영
화가 계속 독립영화였을 뿐이다.

또 몇 가지 생각나는 영화들을 말해보자면 <낯술>같은, 처음부터 끝
까지 찌질함으로 무장된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의 영화(별로였다는 의미는
아니다)도 있고, <델타 보이즈> 같은 생각지도 못하게 마냥 웃긴 작품도 있
다. 그런가하면 우리 사회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계도시>
같은 작품이나, 그 어떤 작품보다 치절함이 느껴졌던 <똥파리>같은 작품도
있다. 말하자면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 즉 관심 있는 사회적 주제에 대한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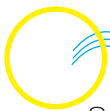
도깊은 논의와 성찰이 담겨있다. 그 덕분에,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보다 색다른 재미가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외 영화 기준으로 <아바타>와 <그래비티>가 나왔을 때 즈음부터 난 상업영화는 새로운 경험을 위한 놀이기구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 같다. 그야말로 익사이팅한 놀이 거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를 감상하며 느끼는 생각의 재미와는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다.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몇 년 전 참석했던 한 행사 「김지운, 박찬욱, 봉준호 특별전」에서 시네21의 주성철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왜 요새는 김지운, 박찬욱, 봉준호 감독같은 작가주의적인 감독이 안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감독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메인스트림 상업영화판에 있진 않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람들에게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불리는 2000년대 초와 같은 영화들을 보고 싶다면 ‘독립영화’를 주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길게 주절거려 봤지만 결국 그래서 독립영화가 뭔지, 왜 독립영화가 재밌다는 건지에 대해서 명쾌한 글은 되지 못한 것 같다. 여기까지 어떤 답을 기대하고 읽었을 독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든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었다면 그 동안 인식에 없던 독립영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길 바라며, 글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시장성이 없어도, 아무도 찾지 않아도, 심지어 독립영화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난 독립영화가 참 재밌다.♣





운동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글 임민창

지난 글에서 말했듯이 회사 사정으로 복싱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복싱을 통해 얻었던 것들을 빠르게 잃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복싱을 배우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편치를 날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근육이 붙기 시작했던 몸도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윤곽이 잡혀가던 몸이 다시 마르기만 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떨어져 다시 여기저기 아픈 몸이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었고 감기도 수시로 걸렸죠. 9개월간 복싱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 원래의 몸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채 1/3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일에 대한 의욕도 저하되었습니다. 컨디션이 나빠지니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니 짜증이 늘었습니다.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지니 가까운 사람과도 마찰이 생기며 삶의 질이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운동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시간을 내기 힘든 저녁시간보다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엄청 힘들었지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이 끝나자마자 회사에 출근해야 했으므로 샤워시설이 갖춰진 운동시설을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고 보니 남은 건 ‘수영’ 뿐이었습니다. 야근

이 많은데 새벽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계속 되었지만,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수영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야근을 하고서도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퇴근 후의 모든 일정을 휴식으로만 맞췄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몸에 붙이고자 수영하러 가지 않는 날에도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면 짐만 챙쳐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지만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수영장을 간 첫날, 물 앞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수영을 배운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물에 대한 공포가 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기억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날, 물 앞에서 느끼는 공포감 때문에 저는 제대로 수영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허우적대기만 하다가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초급반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진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허무함과 함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부족한 체력에다 힘들게 일어나서 간 수영 강습이 쉽지 않았겠죠. 근무 시간에 느끼는 컨디션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대중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대중탕의 냉탕 속에서 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중탕이니 만큼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법’ 같은 것을 연습하기는 어려웠기에 무조건 몸을 담그고 버티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발을 젖지는 않았지만, 몸을 펴보기도 하고 머리를 더 깊이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새벽의 수영장, 밤의 목욕탕을 번갈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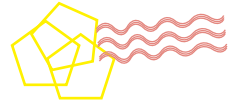
그렇게 한 달쯤 지났는데도 제 실력은 제자리였습니다. 힘을 쓰니까 운동은 되는 것 같은데 좀처럼 수영실력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던 차에 같이 수업을 듣던 최고령 할머니가 제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제가 훨씬 더 젊은데도 실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였지만 나이로 치면 저보다 나왔던 그 분 말씀은 이랬습니다. “1시간 수업하다 보면 기운이 다 빠지고 수업 마치기 10분 전이 가장 잘 뜨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온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발 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복싱을 하면서도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임팩트의 순간에만 힘을 써야 한다는 말. 복싱을 하면서도 저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격투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하게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수영을 하면서도 몸에 힘을 빼지 못하니 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복싱을 9개월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실수를 전혀 다른 운동인 수영을 하면서 알게 된 셈이죠.

그걸 깨닫고 나자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는 힘을 빼고, 필요한 추진력은 다리와 팔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쉬워졌습니다. 금세 초급을 지나 중급으로 올라갔고 고급반에서 모든 영법을 배우는데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수록 익숙해져 새벽에 하는 운동의 맛도 알게 되었죠. 영법을 익히는 것만 하던 터라 근육이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어깨는 넓어지고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부가적인 이득이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영에 깊이 빠져들면서 물속에서 여유를 가지게 됐을 쯤 제 운동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에 계속-

결국은 '우리'의 문제 | 기본소득



글 그록

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시간의 반절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 모두들 마스크를 끼고 당연히 여기던 공간들에서 낯섦을 느낀다.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 장소들은 이제 그 누군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소들로 변모하였고, 결국 그 누군가는 그곳들을 떠나 갑자기 내던져진 삶을 살아야 했다. 내 주변에서만 봐도 여러 가게들이 바뀌었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한숨이 늘어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런 정책 하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할 지도 꽤 지났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변화가 있었는가?

아쉽게도 나는 이에 대해 큰 변화가 없었다고 느낀다. 물론 많은 가게들이 폐업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예술인들을 포함한 프리랜서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이러한 사태는 지속되고 있지 않았던가? 물론 그 양적 차이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구조는 여전히 유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점을 자세히 보기 위해 우리는 이 양적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재난소득 지급 대상자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즉,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어난 피해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소득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생계가 불안하던 이들이었다.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서 표면에 드러났을 뿐 이들은 계속 고통 받던 이들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재난소득이 주어진 이후 이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보다 내가 겪은 일화를 공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아마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할 이야기이고, 이 공감에는 더 이상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알바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재난소득카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아우, 인생 다 살았어.”

뜻금없는 그 말은 권태롭고 짜증나는 하루를 보내던 내게 흥미로웠다. 그래서 되물었다.

“뭘 인생을 다 살았다 그러세요?”

“이제 돈(재난소득) 다 썼으니 좋았던 시간 끝났지 뭐.”

지나가듯 하는 이 말에 난 문득 재난소득이 수여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느껴졌다. 확실히 재난소득 이후 손님들의 지출액이 크게 늘었고, 심지어 노숙자들도 한탕 파티를 벌이려는 듯 많은 먹을거리와 술을 사갔다. 나만 해도 가족이 받은 재난소득 중 내 몫(25만)을 받고는 애인과 맛있는 걸 먹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다 썼다. 애초에 재난소득의 목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던가. 물론 그 돈을 기본적인 생계 이외에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재난소득이 왜 이렇게 쓰이는 지에 파고들어야 한다.

우선 재난소득의 금액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 혹은 단순 추가적인 소득, 즉 보너스 개념 정도이기에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애초에 코로나 전부터 중위소득 이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안한 요소가 컸다. 소상공인은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에 생존을 위협받고, 예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작업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스스로 외줄타기 중이다. 이들에게 재난소득은 상황을 바꾸게 할 정도의 충분한 축적이 되질 못 한다. 그렇기에 재난소득은 재난소득이 없을 때보다 상대적인 조건을 더 낮게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불안한 구조로 돌아가는 것뿐

이다. 그렇기에 이 돈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진다고보다는 우리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재난소득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처럼 흘러간다. 그렇기에 코로나 사태 때 강조한 거리두기는 애초의 예상만큼 실천되지 않게 된다. 물론 비대면 강의, 회의 등이 이어지고 배달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시스템의 바깥의 삶들은 소비정책과 거리두기가 충돌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사실 강의, 회의는 생산 분야에 가깝고 배달은 여전히 전염의 위험이, 오히려 엄청난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소비만을 장려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지원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즉, 이 정책은 전반적인 경제를 살리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부의 불평등은 여전할 것이고, 사회적 불안정은 지속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재난소득을 넘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난소득은 기본소득에 한 걸음 가까이 간 제도이지만, 재난소득과 다르게 기본소득은 위에서 제시된 재난소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기본소득은 공동체 전원에게 매달 현금으로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다. 재난소득과 기본소득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지속성'에 있다. 물론 재난소득도 지속성을 지니지만, 어디까지나 재난이라는 조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에는 위험이 따른다. 즉 기본소득의 지속성은 생계를 보장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일조하지만 재난소득의 지속성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렇기에 재난소득은 소비될 만한 보너스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러한 비판이 머릿속에서 꿈틀대는 분이 있을 것이다. 애초에 재난소득은 재난 시에 주는 특별한 지원이라는 것. 그렇기에 기존의 구조니, 불평등이니 하는 것들은 재난소득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재난이 국가적이라면 왜 특정 사람들이 유독 피해를 입고 그들에게 재난소득이 하나의 축적이 되지 않고 소비되는지를 생각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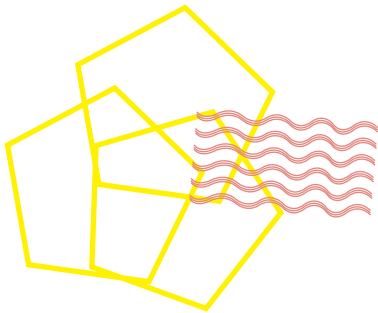
자. 그럼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상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물론 이러한 기본소득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단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기본소득을 진행 중인 이란과 알래스카의 경우 풍부한 석유를 재원으로 삼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부문을 탐색해야 한다.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재원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기본소득론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다. 환경세, 누진세, 공유부 배당 등등. 하지만 내게 중요해 보이는 것은 어떤 부문을 선택하더라도 이 모든 분야는 누군가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마르크스가 토지의 사유화 과정을 수탈로 설명하는 것처럼 환경, 경제, SNS, 데이터 등 많은 부분들이 이미 '수탈'되어 있다. 결국 무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재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피해를 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교훈 같기도 하다. 어쩌면 허황되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눈다는 것, 나에서 우리로 이행하는 것,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희생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흐르는 내내 강조되면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의 윤리적 실천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의 상황 타파를 굉장히 쉬워보이게 하고 각 사람들의 깊이를 단순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로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 지점이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 물론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그 문제들의 근원에는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린 서로를 경쟁적 상대로 보는 걸 넘어 기꺼이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모든 존재자들과의 공생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있다. 그렇기에 우린 새로운 존재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 코로나도 호전되다가 결국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스, 신

종플루 등이 있었다. 전염병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에 의해 더 이상 임금노동으로 소득을 보장받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어쩌면 필연적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새로운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나와 남의 이익을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풍족함을 나누는 사회, 상호호혜성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아끼는 이에게 기꺼이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경제적 척도로 판단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수만큼 많은 척도 등 이러한 허황된 이상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요구로 다가왔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질병에서 낫는 치유가 아니다. 그런 질병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신체의 도래다.♣



위로받고 싶은 날엔, ‘앤’ Anne



글 김해경

앤 설리는 매튜 커스버트 아저씨를 기차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낯을 가리지 않고 스스럼없이 말을 건넨다. 앤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불임성이 좋은 아이라서 그런 것일까?

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을 여의었다. 8살 때까지 남의 집에서 4명의 아이들을 돌보았고, 또 다른 집에서는 8명의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 후에는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앤은 일차 양육자가 계속 바뀌면서 방치되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 주양육자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이는 흔히 ‘애착 외상’을 겪는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앤처럼 낯선 성인에게 주저 없이 접근하고 과도한 친밀감을 나타낼 때 ‘탈 억제 사회관계 장애’로 진단한다. 이는 애착 결핍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성 또는 무분별한 사회성과 충동적 행동을 보이며 다수 대상자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다이어나를 처음 만날 때 앤은 다이어나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매우 걱정한다. 앤은 다이어나에게 마음의 친구가 돼 줄 수 있는지 묻는다. 이처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큰 앤은 애정 결핍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거리조절을 잘하지 못한다. 다이어나는 흑발 머리에 예쁘고 부모님도 계시는 이상적인 대상이지만 앤은 거절당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빨간 머리와 주근깨를 가진 외모에다가 고아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다.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 비슷한 속도로 다가가야 한다. 다가가는 속도를 서로 맞추지 않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아나는 앤과 서로 마음을 나누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낸다. 언제나 앤의 편이 되어 주고 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조시 파이라는 다른 친구는 항상 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장례식날요, 조시는 제 머리가 전보다 더 빨개 보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상복을 입으니까 빨간색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요.

전 조시를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해온 셈이지만

아무래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앤은 조시 파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도무지 조시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조시처럼 타인의 외모나 신상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과는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대인 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모르고,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느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게 되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은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끊임없이 애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과 분노로 인해 상대를 모독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의에 빠질 때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허무감으로 괴로워한다.

직장이나 주변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명문대 출신인 사람,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인정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 자본주의적 감각이 탁월하여 손익계산을 잘하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보일 정도로 분노를 표출한다.

린드 부인도 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인물이다.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는 마틸라가 앤의 교육에 관해서 린드 부인에게 조언을 구할 때 도움을 주지만 앤에게 언제나 돌직구를 날린다.

삐쩍 마른 말라깽이에 얼굴이 참 못생겼구먼. 어머니! 거기다 주근깨투성이야. 또 머리는 왜 이렇게 빨갈지? 머리가 마치 홍당무 같잖아.

저요. 아주머니처럼 야비하고 무례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남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만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똥똥해서 볼품 없고, 상상력이라곤 한 조각도 없어 보인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조시 파이나 린드 부인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화를 내야 제대로 화를 내는 걸까? 화를 표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분노조절장애’의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 홍콩에 다소 특별한 할머니가 있으니 미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플 때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을 보면 홍콩 하즈웨이 베이 근처 보링턴 다리 밑에 여러 신을 모시는 할머니가 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나를 힘들게 해서 미워 죽겠는 사람을 대신 때려 준다.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 주면 할머니가 부적을 써서 벽돌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헌 신발로 부적이 너덜거릴 때까지 두들겨 댄다고 한다. 때리면서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호랑이 인형에 넣어 태우는데 이때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다이에나의 친척 할머니 조세핀은 까칠하다. 다이에나의 집에 초대 받았을 때 앤은 허락도 없이 손님용 침대 위에서 점핑을 했는데 그 침대에서 조세핀 할머니가 자고 있었다. 다이에나의 음악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던 할머니가 조신하지 않은 아이에게 음악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앤의 솔직한 고백에 조세핀 할머니는 자신의 집 손님용 침대에서 앤을 재워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앨런 부인은 앤이 입시 합격 발표에 불안감을 보일 때 억지로라도 매일 바쁘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걸 찾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라고 권유한다. 매튜 아저씨는 앤이 처음 만든 초코 케이크의 점수를 문자 백 점이라고 말하는 대신 ‘케이크를 좀 더 줄 수 있냐’고 묻는다. 또한 앤이 퍼프소매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자 낭만은 좋은 거니 조금은 간직하라면서 퍼프소매 원피스를 선물한다.

길버트는 앤에게 학교 교사 자리를 양보했고 수차례 흥당무라고 놀린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또한 물에서 앤을 건져 줬지만 앤은 길버트를 외면하고 어리석은 고집쟁이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교사 자리를 양보한 길버트에게 고마워했고 사과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

과도한 사회성과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앤은 매튜와 마틸라 덕분에 10대 중반에 내적 성숙을 한다. 커스버트 남매는 앤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줘서 앤과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스테이지 선생님, 앨런부인, 다이애나, 길버트는 앤에게 진심 어린 애정과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앤은 학업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상상력과 감수성이 탁월했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자존감이 높아졌다.

앤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앤은 과거 콤플렉스와 상처를 극복하고 자존감 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존재하는 한 고단한 세상 가운데, 나의 나무 그늘에서 쉬어 갈 수 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나무 그늘이 되어 주고 있을까? ♣



2020
야채문학

시상愛 #1

시 유현재
그림 최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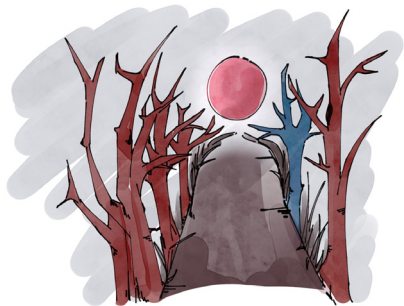
삶의 시작은 작은 행동뿐입니다.
단순히 아침에 눈을 뜨는 작은 행동이
단순히 아침에 땀한 이슬들 사이를 걷는 작은 행동이
단순히 차가운 밤 바람을 피해 창을 닫는 작은 행동이
단순히 밤에 눈을 감는 감는 작은 행동이
꽃이 지는 까닭이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까닭이고
삶이 막을 내리는 까닭입니다.



시상愛 #2

시 유현재
그림 최수연

나 괜찮은 사람 맞죠?
무식하고 어리석은 늑대들 무리에 사는 나
괜찮은 사람 맞죠?
이 늑대들 사이에서 채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나요?
한숨을 휘파람처럼 불어야 하고
슬픔과 고통을 웃음으로 보답해야 하는 건 참 적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달 밤에 하울링은 누군가에겐 위협이고 나에겐 울음입니다.



시상愛 작가노트

글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삶은 욕심 없는 단순한 행동으로부터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이 갖는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끼며.

- 유현재

처음에는 시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담아 보자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행동의 시작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시를 읽고 문득 들었습니다. 이번 그림은 그 생각으로부터 나온 작품입니다. 제 답은 '손'입니다. 작은 행동이나 큰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손으로부터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행동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꽃을 들고 있는 손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던 일이 큰 무언가로 돌아온다는 건 놀랍기도 하고 그만큼 두렵기도 한 일이기예, 내일을 더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연

돌의 마음

조성권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일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관계하고 공유하면서 사랑하지만 각자 마음의 크기가 결국 달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힘을 잔뜩 쥐고 있어서 였던 걸까.

여전히 사랑 속에서 조금씩 정성을 다해서 쌓아갔던 마음들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 돌탑을 쌓다가 작은 바람에 흔들려 와르르 무너져버리면 아마도 이런 느낌일까.

그 바람도 참 상대적인 것이어서 짐작이라도 하고 싶지만 돌의 마음을 나는 알 길이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돌도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다.

요즘은 자신이 없다.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쌓아올린 탑이 자꾸 무너진다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이나 다시 돌을 쥐고 손을 벌벌 떨어가면서 탑을 쌓아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열 번, 백 번 쌓아올리면 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까.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돌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걸 보는 사람도 많이 아프다.

별 별

이혜성

내가 지기 전까지 내 곁에 있어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잠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흘러
저려오는 이 마음 묻고
서로를 안자

내 작은 보물아
내 소원은 영원이 아닌
살아가는 날 속에 우리가 공존하는 것
그것뿐이야

우물

이혜성

우물 가득 고인 물이
고개를 돌리지 아니해도
찰랑찰랑 넘실넘실
인사하는 고갯짓에도
넘실넘실 불안불안
이불 덮고 누워 조용히 감은 눈에도
눈꺼풀 덮는 올림에
요동치는 그릇

차라리 넘쳐흘러 보낼까

차라리 얹어버려 비울까

언제 차올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워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소
비워내길 원하는지
넘쳐흘러 보내길 원하는지
그믐밤 지새우도록 물어도 나는 모르겠소

이별

이밥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해왔을 텐데...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것은 전곡장날 이틀 전의 일이었지만 서분은 장터에 나와서야 그 소식을 듣는다. 어쩐지 어느 장날보다 사람이 넘친다 했더니 그 때문이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해왔을 텐데...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나... 그 소식 때문인지 장터의 장꾼들이나 장나들이객들의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더욱 커지긴 하였으나... 서분은 좀 더 떡을 많이 해오지 않은 게 아쉬울 뿐이다.

아주머니, 그래 바깥양반 소식이라도 좀 들은 게 있나요? 거제도에서는 포로들을 교환한다는데... 이북으로 끌려간 사람들 돌려보낸다는 얘기라도 뭐 들은 거라도 있나요?

서분의 입으로는 단 한 번도 뱉어본 적이 없는 얘기였으나, 냉정리에서 오십리나 떨어졌음에도, 전곡장터 사람들치고 서분의 남편이 전쟁이 나자마자 북으로 갔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냉정리에서 전곡장터를 오가는 사람이 서분만은 아니었을 것이니, 그리고 어린 자식을 돌이나 둔 가장이 전쟁이 나자마자 북으로 끌려갔다니,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였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 모두가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장이 설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광주리를 이고 오십리를 걸어오는 예쁜 아낙의 남편이 설마 자식들까지 버리고 자진해서 북으로 올라갔겠으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이나, 전곡장터 사람들은 서분의 남편은 당연히 납북이 된 것으로 여겨주었다. 서분의 아주버니까지, 즉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 북으로 간 후 기울대로 기운 서분의 시댁을 빨갱이 가족으로까지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잖아도 전쟁 내내 하루는 국군이 또 어떤 하루는 인민군이 마을에 주둔하던 지역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상상에서든 그 어느 누구도 빨갱이도 반동도 만들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분은 확실히 알았었다.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오고, 남편이 그들과 함께 떠나갈 때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애를 좀 잘 챙겨주라 그렇게 당부했건만... 애 옷을 이렇게 입혀놓으면 어떡하나?” 남편은 이별을 고하는 순간에도 네 살짜리 순옥이만 바라봤을 뿐이다. 그게 고작 떠나는 사람이 남길 말인가? 그 것도 아주 떠날 사람이?

장에 가는 날이면 서분의 하루는 길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집을 나섰고, 냉정리 사람들이 모두 잠이든 후에야 집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불임성 있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장사수완이라고 별달리 좋을 순 없지만 서분의 떡광주리는 언제나 아침나절을 넘기지 않고 동이 나곤 했다. 예쁘게 생긴 아낙이 홀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그랬는지, 아니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 늘 같은 자리 점하고 있는 부지런함 때문인지, 다른 장사꾼들처럼 말주변이 좋지 않은 게 외려 객들에게 정을 주었는지... 암튼, 서분은 장사 운이 늘 좋았다. 어쨌거나, 그렇게 떡을 모두 일찍 팔아치우면 일찍 집에 가야 마땅하나, 장이 서는 날이면 서분은 귀갓길에 꼭 친정이 있는 운천을 들르곤 했다.

“무슨 여편네가 뭐 저리도 뻥질나게 친정 나들이를 하는 거야?”

“아유, 뭘 뻥한 거 아니겠어? 얼굴도 반반하겠다... 젊디젊은 여자가 뒷 하러 늙은 시아버지랑 이 산골짜기에서 평생을 살려 하겠냐고?”

모두가 일가친척들이라 그랬는지 냉정리 사람들은 모두 서분의 잦은 친정출입을 곱게 보질 않았고, 서분이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아니 그들은 눈엔 친정엘 다녀오는 날이면 늘 그녀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자 했다.

‘그래 더 붙잡아 둘 수는 없겠지.’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곤 하나 며느리가 장날에 떡을 팔러 다니는 건 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오일마다 친정엘 다닌다니... 냉정리 일가친척들이 둘만 모여도 며느리 입방아를 찧는다니...

‘그래 어딜 가던 여기보다야 낫겠지.’

장남과 차남마저 자신에게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는데, 그 애들의 처들이라고 자신을 시아버지로 대하려나? 서분의 시아버지 영길은 아들 둘이 집을 떠나간 날 그 스스로 이미 일가를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성섭아, 형수들 모두 불러 오너라.”

막내아들 성섭에게 며느리들을 불러오라 해놓고, 영길은 앉지도 않은 채 대청마루 끝에 서서 며느리들을 기다린다. 소나기라도 오려나? 저 먼 산 너머로 먹구름이 모여든다.

저 산 너머 먹구름아 그 산 넘어 오지마라
내 맘 속의 먹구름에 너 들어올 곳 하나 없다
먹구름아 오지 말고 내 마음 속 먹구름이나 불려가렴

“형수님, 아버지가 지금 형수님 데리고 오래요. 형수님 이제 아버지한테 매 맛을 줄 알아요. 아버지 지금 무지 화났거든.”

서분을 부르러 온 막내 시동생 성섭은 열다섯 치곤 키는 꽤 큰 편이었으나, 말투만 봐서는 아직도 영락없는 애다.

“네. 곧 올라갈게요.” 성섭에게 답을 하며 서분은 잠시 상념에 잠긴다. 저 어린 도련님 언제나 애티를 벗으려나... 그나마 몸뚱어리 성한 성섭은 그 손윗 도련님 영섭에 비하면 아무 걱정도 아니다. 피난 중 넘어져 다친 다리를 여태 절고 다니는 영섭 도련님은 그나마 장가라도 갈 수 있을지...

“아이씨, 형수님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데리고 오랬단 말야.” 하긴... 서분이 시집오던 날 성섭의 나이 여섯이었지. 여섯 살짜리 도련님의 반말은 그저 우습기만 할뿐이었는데... 열다섯이나 되고도 어릴 적처럼

아직도 반말을 채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 오늘따라 서분의 상념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상념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시아버지께서 부르신다니 그깟 상념 따위 툭툭 털고 서분은 성섭을 따라나선다.

“네. 어여 올라가세요. 바로 나설게요.” 짚단 정리하느라 옷에 묻은 잔지푸라기들 툭툭 털어내고 시아버지를 뵈러가니, 손윗동서도 대청 앞마당에 서있다.

“아버님, 부르셨다고요?”

“그래. 내... 간단히 여기서 얘기를 할 테니 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

“너희 둘 다 이제 이 집을 나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던지 이제 이 늙은이 신경 쓸 것 없이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거라.”

이제 무슨 영문인가? 집을 나가라고? 서분과 그의 손윗동서 서로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윽고 눈물을 흘리며 대청 앞마당에 쓰러진다.

“아이고 아버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저희를 내쫓으시나요? 뭘 잘못했는진 모르겠지만 제발 화 푸시고 용서해주세요”

영길의 허전한 마음 어찌 서분이 알겠으랴. 늘 저 위 어딘가에 계신 듯 얼굴 표정 한번 지금껏 봐본 적 없는 분이였다. 서분은 자신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했다고 생각할 뿐이다. 더군다나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을 떠나서 어딜 간단 말인가? 내가 보기 싫으시면 아예 죽으라고나 하시지 왜 집을 나가라 하시나?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가슴도 무너져 내린다. 이윽고 다리도 무너져 내린다. 서분만 그랬으랴? 서분 옆의 손윗동서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있다. 서분도 그 옆에 주저앉는다. 두 여자는 통곡한다. 남편도 잃은 마당에 이제 집도 잃을 마당이다. 어떻게 더 살 수 있겠는가? 아버님 살려주세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두 여자의 눈물로 이미 그 바닥 흥건한데 그 위로 후드득 후드득 영길의 바람은 아랑곳없이 저 산 너머 먹구름이 영길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두 여자의 눈물에 자신의 눈물도 쏟아낸다.

먹구름아 먹구름아
너는 뭐가 그리 슬프길래
이리 눈물 쏟아내누
지금 울어야 할 이 나이건만
어찌 너만 쏟아내누

평생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없었기에 우는 법조차 알 길 없는 영길이나, 이 순간 그는 눈물 쏟는 두 여자와 빗물 쏟는 먹구름 따라 자신도 한 없이 울 수 있길 바라본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마음을 벗어나질 못한다. 그저 마음에만 머물다 마음에서만 눈물을 쏟아낼 뿐이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눈물 덕이었을까? 오지 말래도 다가 온 소나기 덕이었을까? 마음에만 쏟았어도 어쨌거나 쏟아진 눈물 덕이었을까? 지난 삼년 내내 겨울만 있었던 마음에 봄이 피어난다. 하지만 이미 뺏은 말을 어찌 되담을소냐? 그저 애매한 말 한마디나 던지고 영길은 돌아선다.

“아무튼 내 뜻은 그러하니 이 집에 남던 나가던 그 건 전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네? ”

통곡하던 두 여자가 영길의 뒷모습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나, 흐르던 눈물이 어찌 갑자기 멈출소냐. 다시금 서분과 그의 손윗동서는 바닥에 엎드리어 눈물을 쏟아낸다. 하지만, 샘솟아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아직 고여있던 눈물이나 마저 쏟아낼 뿐이다. 두 여자의 머리 위로도 소낙비가 점점 잦아든다.

“허허 그 것 참... 허허 그 것 참...”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는 영길의 얼굴엔 웃어서 그런 건지 찡그려서 그런 건지 광대와 입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히는데, 영길 스스로도 자신이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인상을 쓰고 있는 건지 그 마음 알 길이 없다.

“재취자리 알아보느라 그런 게 아니었다더구먼.”

“그러게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던 그 날이 가기 전에 냉정리 사람들은 서분이 왜 장에서 돌아오며 꼭 운천의 친정에 들르는지 알게 되었다.

“그 많은 빨래를 어떻게 다 한 대요?”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지 뭐야!”

“하긴 뭐 부지런한 걸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그 운천댁 따라갈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나저나 그 빨래거리 받느라 양색시들 만나고 그러면 거 이상한 병이나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러게 말이예요. 빨래거리마다 양놈들 냄새가 콧 배여있을 텐데 그 노린내를 어떻게 참나 모르겠어요”

“근데 양놈들은 몸만 큰 게 아니고 그 것도 그렇게 크다는데 양색시들은 거 그 큰 걸 어떻게 받아낸대? ㅋㅋㅋㅋ”

“아유 별 걱정을 다하네. 우리가 애기도 받아내는데, 뭐 물건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거 물건도 하나 못 받아내면 애초에 그 짓을 말아야지 히히히히히”

반성하듯 시작된 수다였으나, 전쟁을 이제 막 겪어내서인지, 사람들은 기필코 자신들의 처지보다 못 한 사람들을 농담 삼는다. 전쟁통에 과부가 된 여자가, 그것도 전쟁만 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남편이 북으로 가지만 않았어도 선생님 사모님 소릴 들으며 살았을 예쁜 여자가 떡장수를 다니는 것도 모자라 양색시들을 위해 빨래도 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큰 위안거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만나고 피난을 치르며 하루하루 고단했던 그들 모두는 어쩐지 자신들보다 더 고단해 보이는 서분과 양색시들을 생각하며 그날 모두 단잠에 빠져든다. 서분이 굳이 자신이 하는 일을 같은 동네 일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열두 식구 대가족 챙기기에 고단한 처지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으랴. 그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든 마다치 않으며 열심히 했을 뿐인데... 냉정리의 일가들 모두 달고 깊은 잠에 든 그 밤 서분은 유독 잠을 이루지 못 한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계셨군요. 오늘도 이쪽을 좀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또 들렀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서분은 빨래하던 손의 물기를 털며 일어서고, 안경을 낀 남자는 집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본 후, 마루에 앉는다.

“오늘도 물 한 대접만 마시고 갈게요. 그나저나 오늘은 유독 조용한 게 집안에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요.”

“아유 웬걸요. 안방에서 지금 어머니 주무시고 계신 걸요.”

“아... 하긴... 나이 드신 분이 어디 가셨을리도 없고...”

물대접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실망스러운 낮빛이다. 물을 달라고 했으나, 남자는 물대접에 입술이나 대는 듯 마는듯하더니 물대접은 내려 놓고 담배를 하나 입에 문다. 서분은 그 옆에 서서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무슨 일을 하는 진 모르겠지만 검지와 중지여 저리 굳은살이 박힌 걸 보면 분명 늘 글씨를 쓰는 사람일거야.’

“아,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왜 그리 뻔히 저를 쳐다보시는지...”

“아아... 아니에요. 오늘 해가 좋아서 그런지 담배연기가 유독 선명해서 그걸 보느라...”

다급하게 행주치마에 손을 훔치는 서분의 얼굴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본 남자는 자신에게서 한 두 뼘쯤 떨어진 자리를 손으로 털어내며 서분에게 말한다.

“아주머니도 여기 앉으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서분의 얼굴은 더욱 붉게 타오르고, 서분의 붉게 타는 얼굴이 그 남자의 눈에서 불꽃처럼 피어오른다. 남자 눈 속에서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민망하여 고개를 돌리는 서분 앞에 남자가 다가서는데, 남자의 마음이 급했었는지 일어나는 찰나 그의 손이 물대접을 튕긴다. 쾅! 깨진 물대접과 편들 밑의 흙이 물에 젖는데,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저 아이를 어쩌나 잠결에도 두 남녀의 온도를 모두 느끼고 있던 영평마님이 이윽고 기척을

낸다.

“밖에 누가 오셨니? ”

“아... 네... 어머니... 늘 오시던 그...”

“규엽이 어머님 저 현상입니다. 지나가던 길에 목이 말라 물 좀 얻어먹으러 들렀습니다. 규엽이는 또 일 나갔나 보네요? ”

“어... 자네 또 들렀구먼... 공부하는 사람이 어찌 이리 자주 친구 집엘 들르는가? 친구도 없는 집엘 말이야. 물 마셨으면 어서 빨리 가보시게!”

“아... 네... 어머님 이제 막 가려던 참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내 지금 옷차림도 그렇고 하니 이렇게 방에서 배웅하겠네. 어서 잘 가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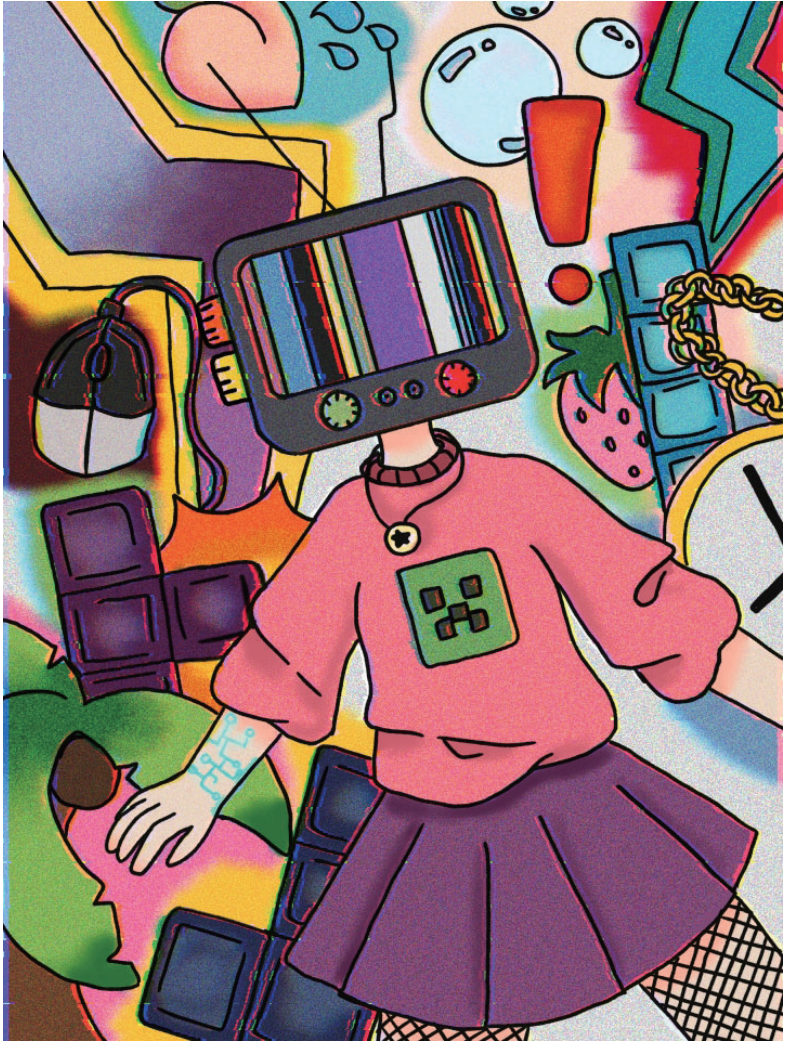
“네... 어머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는데, 깨진 물대접에서 흘러나온 물에 축축해진 땅바닥 위로 발자국 하나가 깊이 새겨진다. 그러나 그 발자국, 오래 머물 수 없다. 8월 초순의 뜨거운 태양에 이윅고 물은 증발되고 남자의 발자국도 물과 함께 사라진다. 다만, 서분의 기억 속에 그 발자국 하나 선명하게 새겨진다.♣

- 겨울호에서 2부가 이어집니다.



Plastic Poison | Annette Kim



Digital Generations | Annette Kim



Photo | Swan



Photo | Swan

정릉야채

정릉야채 5호

펴낸날 2020년 8월 19일

편집위원 김가희 김정훈 김해경 문지원 이연수 이해성 차정미 홍승완
디자인 차정미

펴낸곳 호박이닝쿨책-야채
기획/편집 호박이닝쿨당쿨 편집위원회
지원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호박이닝쿨당쿨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45-3